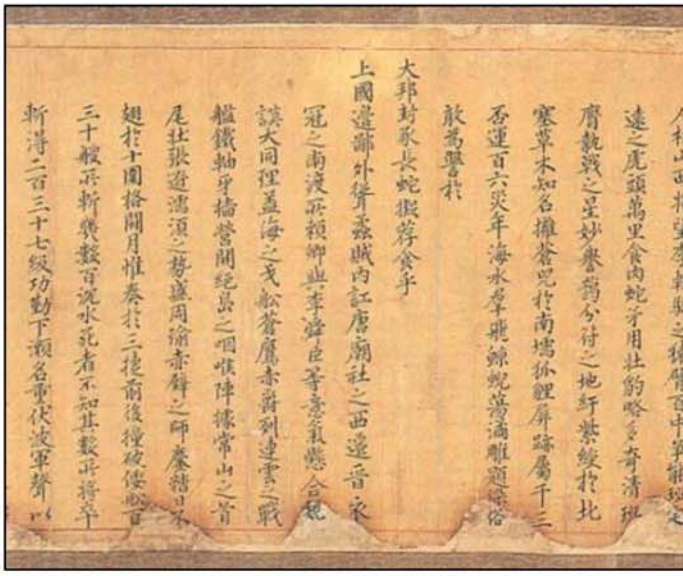
2017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평택의 조선인물열전

平澤文化의 中心 –
평택문화원



2017 평택학 시민강좌

평택의 조선인물열전

12월 4일 월 ~ 8일 금 오후 7시

평택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

대상. 누구나 수강료. 무료

수강신청. 전화접수(평택문화원 031.656.0600)

12월4일(월) 신숙주, 나라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다
김경수(청운대 교수)

12월5일(화) 삼봉 정도전의 삶과 조선건국
장연환(효명고 교사)

12월6일(수) 원균의 역사적 재평가
김방(국제대 교수)

12월7일(목) 잠곡 김육과 대동법
조준호(실학박물관 학예팀장)

12월8일(금) 개항기 열강의 침략과 심순택의 정치활동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주최 평택시 주관 평택문화원

목 차

- 신숙주, 나라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다 007
  – 김경수(청운대학교 교수)

- 삼봉 정도전의 삶과 조선건국 025
  – 장연환(효명고등학교 교사)

- 평택의 인물 원균의 관한 연구 039
  – 김방(국제대학교 교수)

- 조선 최대의 개혁, 잠곡 김육과 대동법 061
  – 조준호(실학박물관 학예팀장)

- 심순택과 평택 071
  –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1강

신숙주, 나라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다

김경수(청운대학교 교수)

청북읍 고잔리의 신숙주사당

신숙주, 나라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다

김경수 청운대학교 교수

목차

들어가며
1. 신숙주와 성삼문의 생애
2. 계유정난, 아직은 수양대군
3. 단종복위운동,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다
4. 친 세조의 길과 반 세조의 길
5. 신숙주에 대한 논란
6. 신숙주의 현실 vs 성삼문의 이상
나오며

들어가며

조선의 건국이념은 성리학이었고, 실천 윤리는 절의와 명분이었다. 성리학적 이념에 의하면, 군주가 되면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하였다. 군주의 정국 운영은 하늘이 할 일을 대신한다는 의미의 천공(天工)이라고 하였다. 관료와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고, 군주가 되는 일은 하늘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에, 군주의 정치는 하늘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국가 권력을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의리와 명분을 지키는 것을 선비의 기본 도

리로 여겼다. 그런데 정국의 변동과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원칙과 도리를 바꾸는 인사들이 많았다. 유교 경전을 공부한 학문의 이상과 공부한 내용을 실천하는 정치의 현실이 일치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공부했던 이상을 지키기 위하여 현실 권력과 대립했던 인사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현실 정치와 타협하는 인사도 역사 속에서 상당수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선왕조 건국 이후의 혼란했던 정국은 태종과 세종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체제의 안정 기반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세종이 돌아가고 병약한 문종의 왕위 승계와 곧 이은 사망, 어린 단종의 즉위로 재상들의 '황표정사'와 같은 비정상적 정국 운영이 초래되었다. 곧 이어 수양대군 주도의 계유정란과 단종의 선위, 두 차례에 걸친 단종복위운동이 발생하는 권력층의 분열이 나타났다.

특히 단종의 선위와 수양대군의 쿠데타는 유교 정치이념의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집현전 학사들과 일부 종친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치지배세력의 일대 재편이 초래되는 등 정국의 지각변동이 나타났다. 즉 세조의 절대 지지파(공신)와 관망파(생육신 등), 절대 반대파(사육신 등 단종복위운동 주동자)가 형성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종의 승하 이후 조정 내부에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조성되기 시작했을 때, 수양대군은 조정 내의 대립과 갈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집권 기반을 잡았다. 그리고 연 이은 공신 책봉[1]을 통하여 권력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편하였다. 이러한 정국 변화는 건국 이후 유교 이념과 통치이데올로기의 확립 및 그에 대한 실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나아가 본격적으로 정치지배세력이 재편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 역사에서 참모가 군주보다 뛰어난 사례가 많다. 그러나 하늘은 참모가 아닌 군주에게 천명을 내렸다. 참모는 군주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면

1) 수양대군이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던 단종 원년(1453) 10월의 계유정난부터 성종 2년(1471)까지 약 20 여 년 동안에 다섯 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다. 짧은 기간에 다섯 차례의 공신 책봉이 있었다는 것은 정치적 격동기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될 일이었다. 모시는 군주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순간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었음은 물론이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모가 가장 경계해야하는 일은 후계 과정에 지나칠 정도로 깊숙하게 관여하지 말아야 했다. 권력 주변의 인사들 중에 후계 과정에 관여하다 생과 사의 다른 길을 걸어야 했던 인물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삼문과 신숙주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조선 초 격변의 시기에 세종과 함께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두 주역, 성삼문과 신숙주는 권력을 향해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이들의 행적은 역사를 넘어 현재에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만고의 충신'과 '변절자의 대명사'로 회자되는 사실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현재 신숙주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1. 신숙주(1417~1475)와 성삼문(1418~1456)의 생애

1) 신숙주의 생애

1456년(세조 2) 2월 21일, 조선 조정에 경사가 있었다. 세조가 명나라 황제로부터 조선 제7대 임금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이보다 앞선 4년 전 1452년 10월,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의 즉위를 중국 황제에게 알리기 위해 명나라 사행 길을 자청했다. 이때 신숙주는 사은사의 서장관(비서관) 신분으로 명나라에 동행했다.

사은사로 중국에 함께 머문 기간은 약 5개월이었지만, 이 시기에 쌓인 두 사람의 신뢰는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굳건했다. 세조가 신숙주를 좌익1등 공신으로 책훈하는 교서에서, 그때(사행 시기)부터 신숙주와 뜻이 통했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술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여는 단초가 명 사행을 통해 마련되었던 것이다.

고령신씨는 조선 초기부터 명문이었지만, 세조의 등장과 더불어 家格을 더욱 높였다. 즉 신숙주가 정난 2등 공신에 책봉되면서 세조정권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것이 큰 바탕이었던 것이다. 신숙주 형(仲舟)의 장인이 延日 정

연[2]이고, 아들 澍는 한명회의 사위였다. 수양대군과 대립각을 세웠던 안평대군이 신숙주의 형과 연결된 사실은 상당히 주목된다. 그러나 신숙주가 현실권력의 흐름에 적극 영합하면서 별 문제없이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숙주의 아들(洌)은 강희맹의 아들(鶴孫)의 장인, 손자 從濩는 안동 權懿(권람의 손자)의 장인, 증손자 濂은 진주 강희맹의 사위이다.[3] 숙주 부인의 동생이 茂松 尹子雲이며, 윤자운의 아버지 淮는 『태종실록』·『정종실록』·『태종실록』의 편찬에 관여하는 등 당대사 편찬 사업에 깊이 관여하는 등 조선 초기 체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4]

어찌되었든 고령신씨 가문은 신숙주와 수양대군의 연결, 명문가와의 통혼권을 통하여 조선 초기 지배세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성삼문의 생애

고려시대 戶長이었던 仁輔를 시조로 하는 창녕성씨 가문의 흥기는 고려말 조선초 成汝完(1309 ~ 1397) 때 이루어졌다. 여완은 조선 건국과정에서 출사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그러나 그의 세 아들(石璘·石瑢·石珚)이 급제 후 고위직에 오르면서 정치적 비중을 높였다. 세조대까지 다수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면서[5] 家格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이에 스스로 鉅族 혹은 名族意識[6]이라고 하면서 위상을 강조하기도 하였다.[7]

---

2) 淵이 안평대군의 장인이자, 우성범(공양왕 부마)의 사위이다. 조카 涵은 최항의 사위, 淵의 형(鎭)은 조준의 사위, 鎭의 아들(孝全)은 태종의 부마이다.

3) **晋州 강씨**는 회백·석덕·희안·희맹으로 대표되는 조선 초 대표적인 훈구가문이었다. 태조의 비 신덕왕후의 아버지가 姜雨이다. 태조의 장남 진안대군의 딸이 한산 이숙무의 사이에서 낳은 차녀가 순흥 安崇孝와 혼인하였는데, 그 소생 딸이 강희맹과 혼인하였다. 권근의 문인 姜淮伯의 부인은 동래 정양생과 성산 이존성 사이의 딸이다. 정양생의 매부가 여흥 閔卞, 즉 태종의 장인 閔霽의 부친이다. 姜子順이 문종의 부마(사측 양씨 사이의 소생 敬淑翁主)인 점 등은 진주 강문과 왕실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강회백의 아들 碩德은 靑松 沈溫(소헌왕후의 아버지)의 사위이다. 희안의 이모부는 세종이다. 성삼문의 외손인 務安 朴增의 손자(윤)가 강희안의 손녀와 혼인하였다. 이 결혼은 단순히 진주 강문과 무안 박문의 혼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창녕 성삼문의 절의정신이 진주 강씨 집안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4) 신숙주 역시 『세조실록』 및 『예종실록』, 『동국통감』, 『해동제국기』 등의 편찬에 관여하는 등 문화사업에 적극 가담하였다.

5) 석용의 후손 중 槪·嶁·三問·聃年, 석연의 후손 중 揜·念祖·奉祖·任·侃·俔·俶·俊·健 등이 문과급제자이다.

국혼으로는 좌찬성을 역임한 抑이 성녕대군(태종 4남)을 사위로 맞이하였다. 성녕대군은 태종 18년에 요절했는데, 공교롭게 이해에 안평대군과 성삼문이 태어났다. 세종은 부왕 태종을 위로하기 위해 안평을 성녕의 양자로 들여보냈다. 따라서 안평은 성삼문의 재당고모인 성억의 딸의 양자가 되었고, 성삼문과는 내외종 8촌 관계가 된다.[8)]

한편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 소생의 수춘군(1430 ~ 1455)은 안평의 둘째 처남 延日 鄭自濟[9)]의 사위였고, 영풍군은 박팽년의 사위였다. 이러한 관계는 수양대군의 즉위과정에 혜빈과 안평대군, 성삼문과 박팽년 등이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석용계가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되면서 멸문의 화를 입었던 것에 비해, 석연계는 가문을 보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조 이후의 정국 운영과정에 참여하였으며, 16세기 이후 사림계의 등장과 함께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성삼문은 신숙주보다 한 살 적었으나 둘은 친구였다. 신숙주는 세종 21년인 1439년에 스물세 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성삼문은 1447년 30세 때 문과 중시에 장원을 하고, 관직 생활을 하였다. 두 사람은 집현전 학사로 활동하는 등 정계에 진출한 초기부터 학문적 동지로 지냈다. 훈민정음 반포 때는 자료 수집에 참가하고, 명나라 학자 황찬을 여러 번 찾아가 음운 지식을 얻어오는 등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두 사람은 집현전 8학사로서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 시기에 수양대군 역시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에 참가했고, 젊은 지식인 신숙주, 성삼문 등과 교류했다.

계유정난 당시 신숙주는 2등공신, 성삼문은 3등공신에 책봉되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둘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이 바로 단종의 선위였다.

---

6) 이태진,「15세기 후반기의 '鉅族'과 名族意識-『동국여지승람』 인물조의 분석을 통하여-」,『한국사론』3, 1976.
7) 15세기 후반 성현은『용재총화』를 통해 '我國鉅族' 중 대표적인 가문 중 하나로 창녕 성씨를 강조하고 있다.
8) 최완수,『조선왕조 충의열전』, 돌베개, 1998.
9) 아버지 淵이 안평대군의 장인이다.

2. 계유정난, 아직은 수양대군

1540년(문종 즉위년)에 수양대군의 장남(이숭, 桃源君)과 판중추원사 한확의 딸이 정략적인 혼인을 맺었다. 국왕의 자리를 노리기 위한 사전 포석의 하나였다. 그가 사돈으로 삼은 한확은 조선 초기 가장 확실한 명나라 통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확은 세종의 서자인 계양군(桂陽君)과도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수양은 스스로 명나라에 문종의 즉위를 승인받기 위한 사신행을 다녀왔다. 이때 그의 사행에는 한확의 도움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임은 자명하다.

수양대군은 중국에서 돌아오고 얼마 후인 1453년 10월 10일에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계유정난 이후 한확이 승승장구했음은 물론이다. 1455년(세조 1) 7월 26일 세조의 장남 이장(의경세자)[10]과 한확의 딸(인수대비)이 혼사를 맺었다. 그리고 9월 5일에 책봉된 좌익공신에 신숙주, 한명회 등과 더불어 1등 공신에 이름을 올렸다.[11] 한확과 한명회가 9촌간이었던 사실은 후계 왕의 즉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12]

한편 원래 병약했던 문종은 자신의 단명을 예견하고 영의정 황보 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에게 자기가 죽은 뒤 어린 왕세자가 등극하면 잘 보필할 것을 부탁했다. 세 사람 중 남지는 병으로 좌의정을 사직하고, 그의 후임인 정분이 대신 당부를 받았다.

그런데 단종 2년인 1453년, 수양대군은 문종의 부탁을 받은 세 사람 가운데 김종서를 불시에 습격하여 죽였다. 계유정난의 시작이었다. 사건 직후 수

10) 한확이 사망한 이듬해인 1457년(세조 3) 9월 2일 의경세자가 사망하였는데, 의경세자의 죽음에 대해 현덕왕후의 저주라는 말이 전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종보다 의경세자가 한 달 먼저 사망하였다. 이런 소문의 진상은 단종에 대한 애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11) 한확은 명나라 사은사로 갔다가 귀국하던 1456년(세조 2) 9월 11일에 급사하였다.

12) 예종의 훙거 이후 예종의 장남(제안대군, 4세)과 의경세자와 인수대비의 장남(월산군, 16세)이 아니라, 차남 자을산군(13세)가 보위를 이은 것은 자을산군이 한명회의 사위였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세조대 형성된 공신집단의 권력 행세에 의한 결과였던 것이다.

양대군은 “김종서가 모반하였으므로 주륙하였는데, 사변이 창졸간에 일어나 상계할 틈이 없었다.”고 단종에게 보고했다. 곧이어 단종의 명이라고 속여 중신을 소집한 뒤 사전에 계획한 대로 황보 인, 이조판서 조극관 등을 궐문에서 죽였다. 또 자신의 친동생인 안평대군이 “황보 인, 김종서 등과 한패가 되어 왕위를 빼앗으려 했다”고 보고한 뒤, 강화도로 귀양 보냈다가 죽였다. 이로써 영의정 황보 인, 좌의정 김종서, 이조판서 조극관 등 원로대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계유정난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의 시작점이다. 즉 계유정난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연장선에 있던 세조의 왕위 찬탈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세조의 왕위 찬탈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면 계유정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친위 쿠데타였다.

신숙주는 계유정난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는 승정원 우부승지 겸 지병조사 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비록 지위는 높지 않았지만, 세조나 신숙주에게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다. 즉 지병조사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수양대군의 눈과 귀가 되어, 궁궐을 호위하는 군사들을 중간에서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으로부터 강제로 왕위를 넘겨받았다. 세조 1년(1455) 8월 13일, 수양대군에서 세조로 변신한 것이다. 세조는 신숙주를 1등 공신에 책봉하고, 다른 공신들과 더불어 신숙주를 동료라 칭하며 그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이때 성삼문도 3등 공신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이는 집현전 학사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일 뿐이었다.[13]

한편 세조는 넘어야 할 큰 고비가 또 있었다. 바로 명나라의 인정이었다. 그때 신숙주가 사은사로 가서 명나라 황제의 인정(고명)을 받아왔다. 명나라의 인정은 계유정난부터 양위 과정 전체를 정당화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단종이 살아 있는 와중에 세조가 양위를 받았기 때문에, 명나라가 그 점을 문

13) 단종복위운동 이후 성삼문은 공신에서 삭제되었고, 고변자인 김질은 3등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제 삼으면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즉위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중국 황제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일을 신숙주가 수행했다는 점에서, 수양대군과 신숙주의 남다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3. 단종복위운동,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다

수양대군에게 옥새가 넘어간 지 1년 후, 수양대군의 등극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던 신숙주와 성삼문 두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조 2년에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이개, 유응부 등이 상왕인 단종의 복위를 계획한 것이다. 이들 입장에서 수양대군의 즉위는 명분도 원칙도 없는 정변이며, 세조를 폐하고 단종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정통성의 회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계유정난까지만 해도 단종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별다른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세조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통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리나 명분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명분 없는 정권이 탄생하자, 그들이 생각하는 명분을 다시 세울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것을 현실 정치에서 드러낸 사건이 바로 단종복위운동이었던 것이다.

1456년 6월 1일. 명나라 사신을 환송하는 연회에서, 세조를 호위하기로 되어 있던 성승과 유응부가 세조를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한명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병조판서 신숙주가 세조에게 호위무사인 별운검을 세우지 말자고 한 것이다.

세조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성삼문 등은 거사를 뒤로 미루었다. 그런데 함께 단종복위를 꾀했던 김질과 그의 장인 정창손이 세조에게 이 계획을 고변한 것이다. 두 사람의 고변으로 결국 단종복위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가담자와 연루자는 모두 체포되었다.

단종복위운동 가담자들에 대한 세조의 응징은 가혹했다. 성삼문을 비롯한 주모자는 '능지처참형'에 처해졌고, 연루자 70여 명이 처형당했다. 가담자와

연루자의 부녀자들은 공신들이 사노비로 나누어 가졌다. 세조 2년 9월 7일의 『세조실록』을 보면, "의금부에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눠주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삼문의 아내와 딸을 비롯한 160여 명의 부녀자들이 세조의 공신들에게 분배되었다.

일반적으로 역모를 꾀하면 3족이 죽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당사자와 핵심 인물의 직계 가족 정도가 처벌을 받는데, 단종복위운동 관련자들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심지어 살아남은 부인과 딸들까지 나눠가졌다. 이는 개인적인 복수 차원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 사건 이후 신숙주는 더욱 강경한 주장을 펼쳤다. 금성대군이 노산군을 내세워 반역을 도모하려 했으니, 1457년 6월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된 단종 역시 편히 살게 할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신숙주는 문종과 세종이 아끼던 신하였다. 그런 그가 문종의 아들인 단종을 죽이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후대에 신숙주에 대한 폄하가 나타난 것이다. 단종비인 정순왕후 송씨와 관련된 야사[14]의 기록도 신숙주의 폄하에 일조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가자 평민으로 강등된 송씨는 날마다 단종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 때 신숙주가 송씨를 공신노비로 달라고 나섰다는 것이다.[15]

4. 친 세조의 길과 반 세조의 길

정통성 없는 쿠데타를 일으킨 세조는 마침내 단종의 왕위까지 빼앗았다. 왜 이런 정변을 강행했을까?

계유정난 직전까지 주요 정치 세력은 단종과 안평대군, 그리고 수양대군파

14) 의경세자의 죽음에 대해 단종의 모후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저주한 지 한 달만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경세자는 단종보다 한 달 전에 먼저 죽었다. 사대부와 백성들의 마음속에 단종을 애도하는 마음이 커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인다.

15) 조선 중기 윤근수가 지은 『월정만필』과 야담집 『파수편』에는 신숙주가 송씨를 노비로 받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의 세 파로 갈려 있었다. 그중 가장 정통성 있는 세력은 당연히 김종서, 황보 인 등 원로대신들이 모시고 있던 '단종'의 왕권이었다. 안평대군은 문인 친구들이 많았고, 평판도 좋았으며, 왕권에 협조적이었다.
반면에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당시에는 영향력이 미미했던 인사들과 가까웠다. 이렇게 볼 때 수양대군은 당시 정국에서 '넘버 쓰리'였다. 수양대군의 선택은 분명했다. 현실을 수긍한 채 '넘버 쓰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정변을 통해 집권할 것인 지였다. 수양대군은 과감하게 후자를 택했고, 그때 그의 곁에 신숙주가 있었던 것이다.

젊은 관료 신숙주의 정치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단종 즉위년인 1452년 9월 13일에 『세종실록』을 편찬하던 중 신숙주는 좌의정 김종서와 의견 충돌을 보였다. 김종서가 『오례』를 『세종실록』에 싣지 않겠다고 하자, 신숙주는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니라며 김종서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원로대신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던 김종서에 맞서 정면 반박하는 신숙주의 성향은, 원로대신들과 대립하던 수양대군의 정치 노선과 일맥상통했다. 수양대군 입장에서 볼 때, 신숙주는 포섭할 가치가 큰 인물이었다. 인사에 대한 조언을 신숙주에게 구할 정도로 신뢰가 컸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숙주는 수양대군을 어떻게 봤을까? 신숙주의 문집인 『보한재집』을 보면, 그 역시 수양대군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호의를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숙주와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의기투합했고, 수양대군으로부터 '나라의 선비'로 대접 받았던 것이다.

급기야 세조는 신숙주가 자신에게 중국 당나라 태종 재의 명재상 '위징(魏徵)'과 같은 인물이라고 공언하였다. 위징은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상 중 한 명이다. 수양대군은 탁월한 젊은 관료로서 원로대신 김종서 등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졌던 신숙주를 선택했다. 그리고 중국의 명재상 '위징' 에 비유할 만큼 자신에게 비중 있는 인물로 삼았던 것이다.

젊고 패기 넘치는 천재 관료 신숙주와 과단성이 충만한 세조는 서로를 선택했고, 이로 인해 신숙주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는 과연 처세의 달인이며 변절자인가, 아니면 나라의 기틀을 새로 짜기 위해 고뇌에 찬 결단

을 내려야 했던 천재 관료일까? 사육신이 아닌 신숙주의 길을 걸었다면, 성삼문 역시 정치와 경제, 문화적인 공을 세웠을까?

5. 신숙주에 대한 논란

신숙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나쁘다. 『연려실기술』을 보면, 신숙주의 부인 윤씨조차 그의 변절을 부끄러워한 것으로 나온다. 단종 복위운동을 하던 사육신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그날 신숙주가 집으로 돌아오니 부인 윤씨가 혼자 다락에 올라 손에 몇 자 되는 베를 잡고 들보 밑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신숙주가 그 까닭을 묻자 윤씨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 "당신은 평소 성삼문 등과 서로 친밀하기가 형제와 같았을 뿐 아니었으므로, 지금 성삼문 등의 옥사가 일어났으니, 당신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죽을 줄 알고, 당신의 흉보가 이르기를 기다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인데, 혼자만 살아서 돌아올 줄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광수의 소설 『단종애사』에는 그의 부인이 목을 매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록』을 보면 윤씨 부인은 사육신의 옥사가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단종애사』나 『연려실기술』의 내용은 후대에 과장되거나 윤색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신숙주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신숙주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육신의 대표적인 인물 매죽헌 성삼문과의 관계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명분·의리보다는 현실 정치와 권력을 쫓은 결과이기도 하다. 과연 신숙주의 선택이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의 정전(正殿)에는 모두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맞은편에는 공신 83인의 위패를 모신 공신당이 있다. 정전에 모셔진 왕들의 공신으로 배향된 인물들이다. 황희 정승, 율곡 이이 등 위인들의 위패와 함께 문충공 신숙주의 위패가 있다. 제9대 임금인 성종의 공신으로

배향되어 있다.

신숙주는 학문에 몰두하는 성실한 학자였다. 처음 집현전 학사가 되었을 때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 기뻐했다고 한다. 조선 전기 학자 서거정이 지은 한문 수필집 『필원잡기』에는 집현전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잠든 신숙주에게 세종이 어의를 내렸다는 일화도 소개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신숙주가 그린 '해동제국총도(海東諸國總圖)'와 그 지도가 담긴 『해동제국기』가 있다. 『해동제국기』는 1471년(성종 2)에 신숙주가 편찬한 일본 관련 서적으로,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내용을 적은 기행문이다.

신숙주는 일본을 제대로 알려면 일본에 대한 지도가 정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신으로 있는 동안 틈틈이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해동제국기』에는 일본의 여러 가지 풍속, 곳곳의 거리와 지도까지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신숙주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치밀한 일본 지도까지 남겼다. 『해동제국기』의 완성으로 그 동안 일본에 대해 갖고 있던 조선의 시각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해동제국총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세밀하고 정확했는데, '외교관' 신숙주의 치밀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면이다.[16]

신숙주는 군사 분야에서도 특출하였다.1460년(세조 6)에 여진족을 정벌하는 장면을 그린 <야전부시도>를 보면, 전투가 한창일 때, 지휘관은 독특한 자세로 누워 있다. 당시 여진 정벌에 나선 함길도와 강원도 양도 도체찰사, 즉 총사령관은 신숙주였다. 한 밤중 여진족의 야습이 있던 순간에 총사령관 신숙주는 막사에 드러누운 채 막료를 불러 시를 읊었던 것이다.

오랑캐 땅에 서리 치니 변방이 차가운데
기마병이 백리에 뻗쳐있구나
밤 싸움은 쉬지 않고 동이 이미 트려하는데
누워서 보니 북두성이 비끼네

16) 그보다 약간 앞선 시기의 지도인 <혼일강리영대국도지도>(1402)를 보면, 일본이 지금의 오키나와 정도에 위치한 나라로 그려져 있다.

적의 야습에도 태연하게 시를 읊은 신숙주의 대담함에 아군의 사기가 올라갔고, 여진족은 포기하고 퇴각했던 것이다. 이 전투로 조선의 군사적 위엄은 대외적으로 과시되었다. 조선이 여진에 대해 독자적 군사행동을 한 것은, 신숙주가 함경도 북부 지역의 여진족을 공격했던 전투가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군사전략가' 신숙주의 역량은 다양한 저술로 이어졌다. 세조가 하사한 군사 서적에 주석을 단 『병장설』을 간행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의례절차를 담은 『오례의』 등 수많은 책을 편찬했다. 또한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했고,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의 편찬 책임을 맡았다. 그의 저술들은 조선의 문화부흥을 견인했다. 이처럼 신숙주는 여러 분야에서 나라의 기틀을 잡은 전문 관료였던 것이다. 학자 관료로서 '조선 전기 문물제도를 완성한 총지휘자'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신숙주는 그가 지지했던 세조의 손자인 성종을 왕위에 올리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세종에서 문종, 단종, 세조를 거쳐 예종, 성종에 이르기까지 여섯 임금을 보필하며 정치의 현장에 있었던 신숙주는 영의정 두 번, 공신(정난2/좌익1/익대1/좌리1)으로 네 번 책봉되었다. 관료로서 최고의 길을 걸은 신숙주는 마침내 성종의 공신으로 종묘에 배향된 것이다.

7. 신숙주의 현실 vs 성삼문의 이상

창백한 지식인이 아니라 실천력을 겸비한 전문 관료로서 조선 초기 숱한 업적을 거둔 신숙주. 그런데 우리는 왜 싫어할까? 비록 세조를 도왔고 그로 인해 세조의 공신이 되었지만, 신숙주는 한명회, 권람 등 다른 공신들에 비해 훨씬 청렴하고 탁월한 관료였다. 그런데도 그의 업적은 잊혀지고, 부정적인 평가만 남아 있을 뿐이다.

신숙주가 부정적인 인물로 각인되는 계기가 있었다. 바로 성삼문 등 사육신의 옥사였다. 국문장에서 성삼문이 신숙주를 나무라자 부끄러워하며 세조의 뒤로 물러났다는 기록과, 조선 후기 숙종이 성삼문의 충절을 높이 평가했다

는 기록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숙주가 폄하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삼문은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온몸이 찢기는 '능지처참'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후에 사육신으로 불리며 충절의 대명사가 되었다. 반면에 신숙주는 세조에 협력하며 관료로서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변절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신숙주와 성삼문, 두 사람이 지나간 발자취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성삼문 등 사육신의 완전한 복권은 신숙주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6세기에 등장한 사림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성삼문의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다 보니, 집현전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인 신숙주가 상대적으로 깎아 내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급기야 조선 후기에는 임금들까지 신숙주에 대한 폄하된 평가를 내렸다. 헌종은 신숙주가 사육신이 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신숙주는 어찌하여 사육신이 한일을 하지 않았는가?……장하다. 사육신의 절개여"(『헌종실록』 11년(1845) 11월 9일)라고, 성삼문 등 사육신을 칭송했다.

이 시기부터 신숙주에 대한 민중의 폄하도 시작되었다. 바로 숙주나물의 등장이 그것이다. 민간에서 신숙주의 변절을 미워하여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에는 녹두나물이 녹두장음(綠豆長音) 혹은 장음녹두(長音綠豆)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숙주나물이란 명칭이 등장하는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렵다. 녹두나물 혹은 숙주나물이라고 순 한글로 표기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1930년대 소설 속에서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숙주나물'이라는 단어를 그전부터 사용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신숙주에 대한 세상의 폄하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해동악부』에는 59세 때 신숙주가 임종 때 남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인생이 마침내 여기에서 그치고 마는구나
> 참으로 어려운 길을 왔도다

저승갈 때가 되어, 생전에 저지른 죄악이 두려워진 마음을 읽을 수 있다.[17]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길을 걸었던 신숙주와 성삼문. 성삼문은 충문(忠文), 신숙주는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성삼문은 충이 앞서고, 신숙주는 문이 앞선다는 역사의 평가인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정통성 없는 정변을 일으켰던 수양대군을 선택한 신숙주는 역사적·대중적으로 변절자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3족이 멸족 당하는 처형을 받은 성삼문은 충신의 대명사로 회자된 것이다. 그러나 신숙주는 정치 권력가의 면도 보이지만, 실천하는 전문 관료의 면모도 있었다.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있다. 우리 앞에 역사적 선택의 길이 주어질 때 우리는 신숙주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성삼문의 길을 걸을 것인가?

나오며

유교적 의리와 명분의 정착이 요구되던 현실 상황에서, 계유정난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수양이 왕위에 오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명분보다 실리를 쫓았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정당성과 유교윤리는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정당성을 잃은 수양대군은 명분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형제 등 종친에 대한 배려와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를 비롯한 유신 11명을 공신(정난 및 좌익)에 책봉하면서, 반대파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썼다. 여러 차례의 공신 책봉을 통해 지지자의 확보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많은 신화를 만들었다. 세조가 지나는데 갑자기 샘물이 솟았다든가, 어가가 지날 때 소나무가 가지를 들었다는 것,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상원사에 갔을 때 문수동자가 고쳐주었다는 일화 등이 그런 사례의 하나이다. 명분을 잃은

17) “말년에 권세가 떠나자 슬퍼하며 적막하게 탄식을 하였다.”는 한명회의 말년 기록이나(연려실기술), 세조의 임종 시 탄식도 동일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정권이 도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벌인 술수였던 것이다.

명분을 상실하고 등장한 정권에 대한 명분론자들의 대응은 명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조 정권의 출범과 함께 두 차례에 걸친 단종복위운동(사육신 주도와 금성대군 주도)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정치의 중간 과정이었던 것이다. 피를 나눈 종친들이었지만, 수양대군의 형제 중 일부는 잘못된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함께 성리학을 공부한 정국 운영의 동반자였지만, 사육신과 공신들은 권력의 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무너진 명분을 세우기 위해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하였던 인사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정치가들이자 학자, 일부 종친들이었다. 특히 사육신으로 대표되는 학자들은 유교 이념의 체계화와 정치운영원리를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정통성과 건국의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개된 국책 사업 및 통치이데올로기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의 학문과 사상이 이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단종복위운동을 통하여 현실 정치에 그대로 반영시키려는 실천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상적인 왕도 정치의 실현과 언론을 중시하는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명분과 도덕성을 잃은 세조정권의 전복과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세력들의 성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권력을 둘러 싼 현실 정치에서 보인 이해관계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는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권력의 잣대로 세상과 사람을 평가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비극적이라는 점에서 어설픈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하였던 인사들의 정신과 사상은 세조 정권을 이끌어 낸 세력에 의해 처형됨으로써 사라지는 듯 하였으나, 정신과 사상은 후대에 그대로 이어졌다. 즉 세종 →문종 →단종으로의 왕위 계승이 국법에 맞는 종통이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와 안타까움에 항거하였던 정신이 계승되었다는 사실이다. 단종복위운동이 지니는 역사적 및 현재적 의미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 정치를 따랐던 인사들은

역사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장점은 과거에 진행된 사실의 시작과 과정, 결말까지 모두 알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역사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성찰하는 사람에게, 역사는 미래의 문을 명확하게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 백

2강

삼봉 정도전의 삶과 조선건국

장연환(효명고등학교 교사)

삼봉집목판

여 백

삼봉 정도전의 삶과 조선건국

장연환 효명고등학교 교사

목차

1. 진위면 은산리의 문헌사
2. 영웅을 기다리는 시대
3. 질곡의 삶, 여물어가는 신념
4. 꿈꾸던 삶, 조선의 건국

1. 진위면 은산리의 문헌사

조선 건국의 총 연출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전은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에 휘말려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조선시대 내내 그에 대한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791년(정조 15)에 정조가 정도전의 학문을 재평가하여 기존의 『삼봉집』[1]을 보완하여 간행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태종과 등졌기 때문에 왕조의 정통성과 관련지어졌고, 16세기 이후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길재-정몽주에서 찾으려는 사림들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조선의 운명이 다 될 무렵인 1865년(고종 2년)에 와서야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훈작을 회복시켜주었다. 1870년(고종 7)에 문헌(文

1) 《삼봉집》은 1397년(태조 6)에 정도전의 아들 정진(鄭津)에 의해 2권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그 뒤 1465년(세조 11)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증손 정문형이 6책으로 중간하고, 다시 1486년(성종 17) 8책으로 증보되었다. 여기에는 신숙주의 후서(後序)가 들어 있다. 그 후 300년이 지난 1719년(정조 15) 왕명으로 간행된《삼봉집》은 14권 7책으로 만들어 오대산, 정족산, 태백산, 홍문관 등에 보관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으로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憲)이라는 시호와 더불어 유종공종(儒宗功宗)이라는 편액도 하사받았다. 그러나 근·현에 들어서도 이른바 삼은(三隱)[2]으로 대표되는 고려 충신들에 비해 거의 주목받지 못하다가, 1973년 한영우의 『정도전사상의 연구』가 출간되면서 정도전에 대한 평가는 급선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식의 변화는 1996-1998년에 방영된 '용의 눈물'이나, 2014년의 '정도전'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일 것이다.

정도전은 경북 영주 출신이지만, 그의 사당은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에 있다. 그의 후손이 이곳에 세거하여 왔기 때문이다. 진위면 은산리의 기동, 방촌, 평동에 살고 있는 200여 가구 중 80% 정도가 정도전의 후손인 봉화정씨이다.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도전의 손자이며 정진의 장남인 정래가 용인현감을 지내다가 입향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진의 묘는 봉화정씨의 사패지였던 강남구 신사동에 있다가 은산리로 이장되었던 데 반해, 정래의 묘는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정래 또는 정래의 아들 무렵에 입향한 것으로 추정된다.[3]

정도전이 복권된 직후인 1872년(고종 9)에는 그의 후손과 죽산부사 이현경의 노력으로 경기도 양성현 산하리(현 원곡면 산하리)에 문헌사(文憲祠)라는 사당이 세워졌다. 1930년에 현재의 진위면 은산리로 이전하였고, 1970년에 증축하여 지금의 사당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정도전의 위패와 영정이 봉안된 문헌사는 1986년 평택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2004년에는 삼봉기념관이 신축되어 경기도유형문화재 132호로 지정된 『삼봉집』 목판본을 비롯하여 복훈 교지 등 정도전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2005년에는 정도전의 장남인 희절공(僖節公) 정진(鄭津)[4]의 사당과 정도전의 정치적 이상을 본받아 '민본재(民本齋)'로 이름 붙인 재실(齋室)을 갖추게 되었다.

---

2) 흔히 목은(牧隱)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야은(冶隱)길재(吉再)를 일컫는 것이었으나, 길재 대신 도은(陶隱)이숭인(李崇仁)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3) 이재운은 소설 『정도전』에서 1차 왕자의 난을 피해 정진의 가솔들이 은산리에서 은둔생활을 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재운, 『정도전』, 책이있는마을, 2014)

4) 1차 왕자의 난 때 삭직되어 전라도 수군(水軍)에 충군되었다가 1407년(태종 7)에 나주목사에 기용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 1425년(세종 7) 형조판서까지 올랐다.

2. 영웅을 기다리는 시대

정도전이 심혈을 기울인 조선 건국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기, 즉 고려 말기 상황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시 정치 사회적인 모습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졌다. 밖으로는 40년간의 대몽항쟁, 80년간의 몽골 간섭에 이어 원·명이 교체되어 가는 형세, 반세기 간의 왜구 및 홍건적의 침입 등으로 국가와 백성 모두 지친 상태였다. 이런 속에서 권문세족으로 불리는 구세력은 다른 사람들의 토지를 점탈하고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에 따라 지주와 전호간의 갈등, 대지주와 중소지주의 대립, 노비와 상전의 알력 같은 사회적 갈등이 연속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모순의 중심에는 권문세족이 있었다.

고려 충선왕 때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宰相之宗)'으로 발표되는 15개 가문이[5], 구세력 즉 권문세족의 핵심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 기구인 도평의사사[6]를 구성하여 막대한 권력을 유지하였다. 특정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된 사회가 늘 그렇듯이 권문세족은 '산천(山川)을 경계'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였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많을 경우 2천~3천 결을 소유하였으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권세가들은 강제로 백성이 소유한 토지를 빼앗고, 양민을 노비로 삼는 방법으로 부를 독점하였다. 국가 유지의 기반이 되는 자영농은 몰락하였고,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형편이 이러하니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도 없었고, 녹봉을 지급할 재정도 고갈되었다. 국가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충선왕, 충숙왕 등 국왕이 나서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을 넘어설 수 없었다. 고려 말에 개혁을 표방한 공민왕은 기득권과 연결되지 않은 신돈을 등용하였다. 신돈은

---

5) 권문세족을 최대 60~70개 정도의 가문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6) 12명으로 구성되어 군사 문제를 다루었던 도병마사가 원나라의 간섭으로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다루었으며 구성원의 숫자도 50~80여 명으로 늘어나 거대 기구가 되었다.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개경은 15일, 지방은 4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돌려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양민들이 신돈을 성인(聖人)으로 칭송하였으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신돈을 내세운 공민왕은 개혁의 동반자인 노국공주가 죽은 후 신돈을 버렸다. 신돈이 기득권층과 얽히지 않은 것은 개혁을 위한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었으나, 왕이 유일한 후원세력이었기 때문에 공민왕이라는 동아줄이 끊어지면서 그를 지켜줄 세력은 전무하였다. 전근대 사회였기 때문에 신돈에 대한 농민의 신뢰와 지지는 그저 물거품이었을 뿐이다. 공민왕이 살해당하고 우왕이 즉위하자 친원파가 득세하면서 고려 정치 사회적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

어느 시대든지 기득권층이 자신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는 없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특권을 사수하려 한다. 신라 말기 진골세력이 골품제 사회의 문제점을 개혁하려 들지 않았던 것처럼, 권문세족 역시 특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또한 신라 말기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여 골품제 사회를 해체하였듯이 고려 말기의 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성장한 신진사대부가 바로 그들이며, 그 중심에 정도전이 있었다.

3. 질곡의 삶, 여물어가는 신념

정도전은 경북 봉화의 향리 출신인 정운경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대대로 봉화에 살아왔던 그의 가문은 아버지 때에 비로소 개경으로 진출하였다. 정운경은 1331년(충혜왕 1) 벼슬에 진출하여 1356년(공민왕 5)에는 병부시랑, 1359년(공민왕 8)에는 형부상서(정3품)까지 올랐다. 시골 향리에서 상서자리까지 올랐으나 그의 청렴하고 강직한 생활 때문에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 처자가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정도전은 약간의 늙고 힘없는 노비를 상속받을 정도였다.

정운경이 이색의 아버지인 이곡과 사귄 것을 인연[7]으로 정도전은 이색의

문하에서 정몽주 등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그는 19세인 1360년(공민왕 9)에 성균시(成均試)에 이어 21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22세에 충주목 사록(司錄)에 임명되면서 벼슬길에 들어섰다. 24세에는 왕의 비서직에 해당하는 통례문지후(通禮門祗候, 정7품)로 승진하였으나 공민왕이 신돈을 총애하자 삼각산 옛집으로 낙향하였다. 25세(1366, 공민왕 15)에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을 잇달아 당한 후 영주에 내려가 3년 상을 치렀는데, 이 무렵 정몽주가 보내준 『맹자』를 하루에 한 장 또는 두 장씩 날마다 정독하였다. 맹자는 “(하나라의)걸과 (은나라의)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들의 백성을 잃은 것이다. 그 백성을 잃는다는 것은 그 백성의 마음을 잃은 것이다”라고 했다. 하늘의 뜻이 바로 민심에 있다는 맹자의 ‘민본사상’은 정도전의 철학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역성혁명에 대한 그의 신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상을 마치고 삼각산의 옛집으로 돌아와 2년을 머물다가, 1371년 신돈이 죽고 난 후 이색이 대사성을 맡고 있는 성균관 교관들의 천거로 성균박사에 임명되었다. 성균박사 시기 강학과 토론을 통해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

그러나 역성혁명 사상을 접한 지식인으로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도전이 학문에만 몰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소신이 뚜렷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성격은 삶이 녹록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공민왕이 죽고 난 후 이인임 등 친원파가 다시 득세하면서 정도전의 험난한 삶이 시작되었다. 1375년(우왕 1년) 원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영접사에 임명되었으나, 정도전은 원 사신의 접대를 단호하게 거부하였다.[8] 이로 말미암아 전라도 나주 회진현에 속한 거평부곡으로 유배되면서 9년간의 험난한 삶이 시작되었다. 유배를 떠나는 길에 권신 염흥방은 사람을 보내 ‘조금 기다리면 유배령이 해제될 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리라’는

7) 정운경은 7세 연상인 이곡과 지금의 안동에서 만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친구가 되어 관동지방을 같이 유람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

8) 이 때 34세였던 정도전은 글을 짓는 문한직을 맡고 있어서 사신 접대자로 선택되었지만, “내가 사신의 목을 베어오거나 아니면 체포하여 명나라로 보내겠다.”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였다.

뜻을 전하며 회유하였다. 이에 대해 “나의 말이나 시중의 분노는 각자 자신의 소신을 고집하는 것으로 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오. 지금 왕명이 있었는데 어찌 공의 말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단호히 거절하며 곧바로 말에 올라 유배지로 떠났으니, 염흥방의 회유를 발로 걷어차는 격이었다. 유배길에서는 “옛부터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니[自古有一死], 살기를 탐내는 것은 편안한 일이 아니다.[偷生非所安]”이라고 마음을 다지는 시를 읊었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는 않는 모습이자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다. 염흥방이 회유를 받아들였으면 가지 않았을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격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의 표적이 되었으니, 복권되어 벼슬길로 되돌아 가기는 요원해졌다.

정도전은 소재동(消災洞)이란 마을에 살면서 전부(田父), 야인(野人), 승려 등을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민초들이 겪는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유배 중임에도 춥고 배고픔을 하소연 하는 아내의 편지에는 흔들림 없이 ‘나라를 근심하는 것’이 자신의 직분임을 피력하였다. 한편, “형제보다 정이 두터웠던 친구들이 유배 이후 뜬 구름처럼 흩어졌다.”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이켜 보고는, “본래 세력으로 맺어지고 은혜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과거를 평하며 친구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삼켰다. 가난에 허덕이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유배의 괴로움을 달래준 사람들은 부곡민들이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재동 사람들은 정도전을 믿고 따르며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농부들의 중앙 통치자들의 행태에 비판을 가하는 농부를 만나면서 그들이 한갓 무식한 사람들이 아님을 목도하며 자신이 진짜 선비인지 반성도 해보았다. 거평부곡에 살면서 정도전은 중앙에서 벼슬하는 사람이 아닌 부곡민의 입장, 농토를 빼앗기고 고통을 겪는 소작인의 입장으로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을 것이다. 그 시기의 소중한 경험과 부곡민들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던 정도전은 「소재동기」라는 기록으로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정도전은 1377년(우왕 3) 귀양지가 종편거처(從便居處) 즉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 고향인 영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왜구가 창궐하여 단양, 제천, 안동, 원주 등지로 피난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편하게 지낼 수는

없었다. 결국 삼각산(북한산) 밑의 옛집으로 돌아와 삼봉재(三峰齋)[9]라는 초막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마저 정도전을 미워한 권세가에게 헐려서 과거 동문인 부평부사의 도움으로 부평으로 이사했으나, 또 다른 권세가의 횡포 때문에 김포로 거처를 옮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때가 그의 나이 41세인 1382년(우왕 8년)이었다.

유배와 유랑으로 점철된 9년 동안의 고독은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다듬은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그는 중앙으로 부름 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농민들과 어울러 그들의 삶과 애환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 농민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면서, 손수 농사를 짓고 생활하면서, 향촌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는 자신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다듬어 갔을 것이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다음은 견해를 밝혔다.

"임금의 지위는 존귀한 것이다. 그러나 ..... 만일 천하 만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긴다. ..... 민심을 얻으면 백성은 군주에게 복종하지만,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군주를 버린다."

백성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벼슬길마저 막혀버린 정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역성혁명 뿐 다른 길이 없었다.

4. 꿈꾸던 세상, 조선 건국

혼탁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백성의 나라'를 설계한 정도전에게 남은 것은 역성혁명의 동지를 찾는 일이었다. 정도전이 함길도의 함주에 있는 이성계를 찾은 것은 오랜 재야 생활을 접고 벼슬에 다시 나가기 바로 전 해인 나이 42세 때(1383, 우왕 9)였다.

이성계[10]는 왜구 토벌로 백성들의 신망이 높았고, 기득권 세력과 거리가 있

9) '삼봉'이라는 호는 단양의 도담삼봉이 아니라 서울 삼각산과 연관 짓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었기 때문에 정도전이 거사를 도모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인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이 만남으로 정도전의 역성혁명에 대한 포부가 군사적 힘과 결합될 수 있었다. 또한 이성계는 정도전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력을 혁명을 위한 무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햇수로 10년만인 1392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은 『태조실록』과 『용비어천가』에 모두 실려 있다. 두 문헌은 각각 정도전을 제거한 태종과 그의 아들 세종 때 편찬되었지만, 정도전의 행적을 빼면 조선 건국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새 왕조 창건 후 정도전이 취중에 이따금 이성계와 자신의 관계를 한 고조 유방과 장량의 관계에 비유하여 "한 고조(유방)가 장량을 쓴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한 고조를 쓴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도전 졸기에 전하는 이 말은 정도전이 무례했음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정도전을 만나기 전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1384년(우왕 10)에 정도전은 43세의 나이로 유배를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관직에 진출하였고, 1388년(우왕 14)에는 위화도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의 추천으로 정3품의 성균관 대사성에 올랐다. 이들은 위화도회군 후 최영을 제거하고 창왕을 옹립했으나 이듬해인 1389년 다시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내세웠다.

역성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지제도의 개혁이었다. 『고려사』에는 "권세가들이 남의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우기면서 주인을 내쫓고 땅을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대여섯 명이 넘기도 하여 전호들은 세금으로 소출의 8~9할을 내야 한다"고 기록되었다. 또한 농장주들은 세금도 내지

10) 이성계 집안은 그의 고조인 이안사가 전주에 살 때 관기(官妓)를 두고 산성별감과 다투다가 경흥으로 이주하여 원나라의 다루가치(達魯花赤)가 된 이래 대를 이어 원나라 벼슬을 살았다.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 역시 원나라 천호(千戶)로 있을 때 원나라에서 호적을 새로 작성하면서 원주민을 우대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대대로 구축해 온 세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에 귀부하고 공민왕의 영토수복운동에 부응하여 동북면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공민왕의 반원정책에 가세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이자춘은 22살의 이성계를 데리고 개경에 들어갔다. 이자춘은 개경에 1년 동안 머무르다 동북면으로 돌아와 4년 후에 병사하였다. 이에 이성계는 아버지의 세력 기반을 이어받았고, 이는 조선 건국의 세력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권문세족은 가난한 백성의 농토뿐만 아니라 신진사대부의 토지까지도 침탈하는 탐욕을 부리게 되었다. 그 동안 권문세족에 대항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온 신진사대부들은 이러한 토지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둘로 갈리게 되었다. 온건파인 이색은 토지 소유자를 한두 명으로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 외에 당시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그의 제자인 정도전은 토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계민수전(計民授田)' 즉, 인구수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려면 권세가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는 자영농을 육성하여 민생을 위하는 특단의 조치였으나, 권세가의 경제력을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정도전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스승 이색과도 등을 돌리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391년(공양왕 3)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과전법을 단행할 수 있었다. 위화도회군에 이은 과전법의 시행으로 권문세족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다. 전제개혁의 성공은 보수 세력과의 계속된 대립에서 혁명파 사대부가 완전히 이겼음을 의미한다. 정도전은 "사람 위에 있는 자는 법으로 다스려서 다투는 자를 평화롭게 하고 싸우는 자를 화합하게 한 연후에야 민생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는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없기에 백성은 10분의 1을 내어서 윗사람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벼슬아치를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기르는 존재'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과전법의 시행으로 정도전은 그가 꿈꾸는 세상의 문 앞에 다가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게 정도전 일파에 대한 보수파의 공격은 집요하였다. 특히 역성혁명의 기미를 눈치 챈 정몽주의 반발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1392년 4월 이방원의 주도로 정몽주가 죽고, 그 해 7월 혁명파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후 '삼봉이 아니면 내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그의 공을 치하했다. 조선 건국 과정은 정도전에게 민생 안정을 위한 역성혁명의 과정이었다.

원하던 새 왕조가 열리면서 정도전은 정책결정, 관료인사, 재정, 군사 등 국

가경영에 필요한 핵심적 관직을 겸직하였다. 그야말로 전권을 위임받아 백성의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를 수행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궁궐 및 사직단, 종묘의 위치를 정하고 경복궁이라는 명칭과 궁 안의 건물명, 도성문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양의 마을명[坊]을 지었다. 또한 일종의 헌법이라 불릴만한 『조선경국전』 등 국가 경영에 필요한 많은 저술을 남기는 등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대저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입는 것과 먹는 것이 풍족해야 예의를 안다."면서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고 백성들이 풍요로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의 육성, 합리적인 조세 정책 및 빈민 구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민본 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도전은 군주의 독주를 막는 재상 중심의 정치, 언로의 확대 및 수령의 자질 향상 방안 등을 구상하였다.

정도전은 조선 개국의 주도를 넘어서 새 국가의 실제적인 설계자였던 것이다. 1395년(태조 4) 태조가 경복궁에서 연회를 베풀며 특별히 써서 내려준 '유종공종(儒宗功宗, 유학에도 으뜸, 공에도 으뜸)'이라는 네 글자는 그의 업적을 압축하여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뉘앙스를 풍겼던 정도전이란 인물이 '민생 안정을 실현한 혁명가적 영웅'의 이미지를 갖게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정치가들이 존경하는 위인으로 언급되는 것이 낯설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다. 청년실업 문제, 양극화, 비정규직 등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들이 적잖은 지금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불행하다. 그러나 영웅을 낳지 못하는 시대는 더욱 불행하다."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말이 떠오른다.

[참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14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2014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한영우, 「정도전의 업적과 생애」, 『계간 사상』, 1993
이덕일, 『정도전과 그의 시대』, 옥당, 2014
김용옥,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 통나무, 2013
김인호, 「혁명의 설계자와 역적의 사이에서」, 『내일을 여는 역사』, 2017

여 백

3강

평택의 인물 원균에 관한 연구

김방(국제대학교 교수)

원릉군사우

여 백

평택의 인물 원균에 관한 연구
-역사적 재평가를 중심으로

김방 국제대학교 교수

목차

Ⅰ. 머릿말
Ⅱ.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의 시대적 상황
Ⅲ. 임진왜란의 발생 및 한민족의 항쟁과정
Ⅳ. 원균의 생애와 원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Ⅴ. 이순신의 생애와 이순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Ⅵ. 원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Ⅶ. 맺음말

Ⅰ. 머리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순신(李舜臣)은 민족의 성웅인 반면 원균(元均)은 간신이자 민족의 역적이었다.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백의종군을 마다 않은 충신인 반면 원균은 공을 시기하여 충신을 모함하는 간신이자 역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의 상식이었고 고정관념이었다. 그리하여 원씨 성을 가진 아이들은 반에서 기를 못 펴고 살았고 또 원균의 후예라고 놀림까지 받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원균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정당한 것인가에 의

문을 제기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후 공신들에 대한 포상기록인데 문신으로는 이항복과 정곤수가 호성 일등공신이었고, 무신으로는 이순신·권율·원균이 선무 일등공신에 책봉되었기 때문이다.[1)]

실상 원균은 간신도 아니었고 역적도 아니었다. 원균은 뛰어난 장군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충신이자 국가를 위한 용장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원균이 간신으로 묘사된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이순신이 민족의 성웅으로 재조명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어느 역사서에도 원균이 간신이라는 기록은 없다.

원균은 장수로서 비겁하지도 않았고 우직하면서 용맹하였다. 그리고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면직될 때 모함하지도 않았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순신을 민족의 성웅으로 우상화 하면서 이순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균이 희생양이 된 것 뿐이었다. 원균은 성격이 불같고 저돌적이었다. 여기에 겁이 없었고 자기절제가 부족한 인물이었다. 원균은 지장이나 덕장은 못되었지만 용맹하여 선봉 장수감으로는 적합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균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 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여 원균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원균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는 평택지역 주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여진다.

Ⅱ.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의 시대적 상황

1. 국내적 상황

조선은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 오랫동안 사화와 당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였다. 양반들은 동인과 서인 그리고 남인·북인·노론·소론 등 사색당파로 나뉘어서 당쟁을 일삼았다. 여기에 관리들이 비행과 착취를 일삼자 농민층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 동요의 대표적인 것이 명종 12년(1559년)에 일어난 임꺽정의 난이다.

일찍이 중종 36년에 대마도의 왜인들이 고성의 사량도를 침범하여 난동을

1) 『조선왕조실록』선조 37년 6월 25일.

부렸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통상을 단절하였다. 이후 일본의 아시카막부가 사신을 파견하여 통상의 재개를 간청하였다. 조선 정부는 명종 2년(1547년)에 일본의 요청을 받아드려 과거의 조약보다 엄중한 제한을 가하고 위약시의 벌칙까지도 규정한 정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명종 10년(1555년)에 접어들어 왜선 60여 척이 전라도 지방에 침입하여 달량포(현재 전남 해남지방)를 점령하고 약탈을 일삼는 등 을묘왜란을 일으켰다. 조선 정부는 이와 같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사의 기무를 관장하는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이의 10만 대군 양병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예의 군대를 양성하는 데도 주력하지 않았고, 무기·화포·화약 등의 개량에도 노력하지 않았다. 단지 성능이 저조한 궁시와 창도뿐이었고 조총의 위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다.[2)]

2. 국외적 상황

조선 정부가 이러는 동안 요동지방에서는 건주위 추장 누르하치가 왕이라 자칭하며 세력을 확장하였고 국경 연안 일대에는 왜구가 창궐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은 선조 18년(1585년)에 100여 년간의 전국시대를 끝내고 풍신수길이 전국을 통일하여 조선 침략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은 명나라를 침범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선조 20년(1587년)에 대마도 도주를 통하여 조선 정부에 수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수교를 거절하자 풍신수길은 명나라를 칠 것이니 길을 빌려 달라고 조선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의 야욕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조 23년(1590년)에 사신으로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을 일본으로 파견하였다.[3)]

선조 24년(1591년) 3월 일본에서 돌아온 황윤길과 김성일 등 두 사신은 의견을 달리하였다. 정사 황윤길은 반드시 일본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부사 김성일은 일본의 조선침략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4)] 당시

2) 김방,『한국의 역사와 문화』(한울출판사, 2002) pp.160~161.
3) 김명준,『임진왜란과 김성일』(백산서당, 2006) pp.23~25.
4) 김명준, 앞의 책, pp.28~36.

조선 정부는 당쟁에 의한 당파 싸움에 치중하였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으므로 정사 황윤길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사 김성일의 의견을 채택하였다.

Ⅲ. 임진왜란의 발생 및 한민족의 항쟁과정

1. 임진왜란의 발생

이러한 가운데 선조 25년(1592년)에 접어들어 풍신수길은 20만 대군 보내어 조선을 침략하였다. 풍신수길은 일본을 통일한 후 불만 봉건제후의 세력들을 해외로 배출하여 일본의 통일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에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야만 했던 것이다.

일본군이 침입해 오자 부산 첨사 정발과 동래 부사 송상현이 일본군을 맞아 싸웠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3가지 길로 나뉘어서 서울을 향해 진격하였다. 당황한 조선 정부에서는 여진족 이탕개의 난을 진압하여 공을 세운 이일을 경상도 순찰사로 삼아 일본군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상주에서 패퇴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역시 이탕개의 난에 큰 공을 세운 신립을 도순변사로 임명하여 일본군의 진로를 차단케 하려고 하였다. 신립은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일본군과 대항하였으나 실패하여 충주마저 함락되고 말았다.

충주가 일본군에 의하여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하여 지자 선조는 광해군을 비롯하여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 이때 조선 정부의 이러한 무능과 무책임에 일반 국민들은 분격하였다. 그리고 노비들은 노비안을 맡고 있는 장예원과 형조를 불질러 버렸다.

한편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였고, 40여일 만에 평양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일본군은 전국시대의 전란기를 거치면서 전쟁의 경험을 쌓았고 또 신무기인 조총을 사용한데 반하여 조선의 군사는 훈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식무기에 수적으로도 열세였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군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2. 민족의 항쟁

육전에서 참패를 거듭하는 동안 반대로 수군은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부터 수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거북선 등 함선을 건조하였으며 군사들의 훈련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이순신이 고안하여 제작한 거북선은 옥포·당포·당황포·한산도·안골포·부산 등의 해전에서 일본의 수군을 대파하였다. 옥포와 당포는 이순신과 원균의 합작 전투이었다.

특히 한산도 앞바다에서의 일본군과의 해전은 일시에 적을 공격하여 적선 70여 척을 나포 또는 격침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이것이 바로 한산대첩이다. 한산대첩은 김시민의 진주성 및 권율의 행주성과 더불어 임진왜란의 3대 첩으로 불리고 있다.

이순신의 승전으로 서해를 통해 북상하여 육군과 합세하려던 일본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여기에 보급로까지 차단되어 일본군은 육전에서 고군분투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한산도에 통영을 설치하고 충청·전라·경상도 등 삼도의 수군을 총지휘 하였다. 특히 이순신의 공적으로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이 안전하여 전란에 따른 식 량 부족의 위기를 모면하였다.[5)]

한편 각 지방에서는 유생과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정부의 모병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일본군이 침입을 감행하자 가족과 재산 및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항전하였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충청도 옥천에서 봉기하여 청주의 일본군을 격퇴하고 금산에서 일본군을 공격하다 전사한 조헌이다. 그리고 경상도 의령에서 거병하여 의령과 창령 등지에서 일본군을 섬멸하고 진주에서 김시민과 함께 일본군을 격퇴한 곽재우이다. 또 전라도 장흥에서 거병하여 금산에서 전사한 고경명과 수원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일본군을 격파하고 제2차 진주전에서 전사한 김천일이 있다. 여기에 함경도에서 거병하여 경성과 길주의 일본군을 격파한 정문부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밖에도 휴정과 유정과 같은 승려 의병장도 있었다. 의병장들은 유격전술

5) 김방, 앞의 책, p.162.

로 일본군의 군사행동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조선의 관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 주었다.[6)]

피난 중에서도 선조는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에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명나라는 내부상서 석성의 주장으로 구원병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명나라 총병 조승훈은 군사 5천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명나라에서는 심유경을 보내어 화의를 모색케 하는 한편 재차 이여송의 5만 대군을 파견하여 평양을 공격하였다. 명나라는 평양을 함락시킨 후 철수하는 일본군을 쫓아 개성까지 점령하였으나 벽제관 전투에서 대패하여 다시 후퇴하였다.

조선정부는 관군·의병·승병 등의 통합군 만여명을 행주산성에 집결시켜 명나라와 연합한 후 서울을 수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에게 명나라 군이 패배하여 조선정부 통합군 지휘자인 권율이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일본군은 서울에 집결하고 있던 때라 3만의 대병력으로 계속적인 공격을 해왔으나 권율은 고군분투하여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후 권율은 대원수가 되어 조선의 수군과 육군을 총지휘하게 되었다.

행주성 전투에서 권율에게 패배한 일본군은 서울에서 철수하였고 충청·강원도 지방의 일본군도 남하하였다. 이후 일본군이 울산·동래·거제 등에 진을 치고 장기주둔에 들어가자 화의가 진행되었는데 화의진행 중 일본군은 진주성을 공격하였다.

진주성은 약 5만에 달하는 일본군에 포위되어 공격을 받았는데 의병장 김천일의 지휘로 수천의 군사와 6만의 진주성민이 최후까지 항전하였다. 이리하여 제1차 진주성 전투는 승리하였으나 제2차 전투에서는 함락 당하고 말았다.

3. 정유재란과 왜란의 영향

조선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진행되던 화의는 양측이 모두 승전자임을 자처하고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결렬되고 말

6) 김방, 앞의 책, p.163.

았다. 이에 일본군이 조선을 다시 공격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이다. 정유재란 때 풍신수길은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을 선봉장으로 하여 조선에 15만 대군을 보내 침입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도 군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명나라의 구원병도 즉시 출병하였기 때문에 일본군의 침입은 경상도 지역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군의 활동은 임진왜란 때와 달랐다. 왜냐하면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간첩 요시라의 이간책으로 모함을 받아 투옥되어 있는 사이에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로 부임하였으나 안골포·칠천량 등의 해전에서 대패하였기 때문이다.[7)]

조선의 수군을 물리친 일본군은 기세가 높아져 사천·하동·구례·남원·전주 등을 점령하고 익산까지 진격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이순신을 재기용하여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였다. 이순신은 12척 밖에 남지 않은 전함을 이끌고 명량해전에서 일본군 선함 133척을 대파하여 제해권을 다시 회복시켰다. 이후 일본군은 경상·전라도 해변지대로 몰리고 연합군에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자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명나라도 선조 33년 9월에는 완전히 철수하였다.

풍신수길의 뒤를 이어 집권한 덕천가강은 대마도주를 여러 차례 조선에 파견하여 수교를 요청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거절해 오다가 선조 37년(1604년)에 손문혹과 사명당 유정을 일본에 파견하여 국정을 살피는 한편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된 조선인을 송환하도록 교섭하였다.

이후 선조 40년(1607년)에 접어들어 덕천가강이 조선인 포로 3000여명을 보내오니 이로써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재개되었다. 그후 광해군 원년(1609년)에 조선은 대마도와 을유조약을 맺고 부산포를 개방하고 세유선 30척으로 제한하여 교역을 다시 시작하였다.

조선은 일본과 7년간의 전란으로 인하여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지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특히 농지의 황폐화는 농민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임진왜란 후 전국의 경작면적은 종전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으며 가장 많이 피해를 많이 본 경상도의 경우는 겨우 6분의 1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7) 『조선왕조실록』선조 30년 7월 22일.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여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조선 정부의 재정 역시 악화되었고 조세의 파악 근거인 호적과 양안마저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되어 버렸다.

조선 정부는 식량과 군량이 부족하자 일정한 양의 미곡을 납입한 자에게는 그 대가로 천민은 평민으로, 평민은 양반으로 신분을 높여 주었다. 이리하여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제도가 성행하기도 하여 조선 왕조 개국 초 엄격하였던 신분제의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또 문화적으로도 일본군에 의한 방화와 약탈로 국보적인 문화재의 손실이 많았다. 이때 불국사·경복궁과 4개 사고(史庫)에 보관 중이던 왕조실록을 비롯한 많은 서적 및 미술품이 소실되었다.

Ⅳ. 원균의 생애와 원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1. 원균의 생애

원균은 고려 태조 때의 통합삼한공신 병부령 원극유(元克猷)의 후손으로 중종 35년(1540년) 1월 5일 경상좌병사 원준량(元俊良)의 장남으로 현 평택시 도일동 하리 안말에서 출생하였다.[8] 원준량은 이후 영의정과 평원부원군으로 추증되었다.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평중(平仲)이다.

원균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호탕하였으며 몸이 날쌔고 힘이 세었다고 한다.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을 거쳐 조산만호(造山萬戶)로 있을 때 변방의 여진족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 공적으로 원균은 부령부사로 특진되었다. 이후 종성으로 옮긴 원균은 병사 이일(李鎰)을 따라시전부락(時錢部落)을 격파하는 데도 공을 세웠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과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나아갔던 원균은 이순신보다 5살이 많았다. 원균은 몸가짐이 청백하고 전투에서는 용력(勇力)으로 선전(善戰)하였다.[9] 또한 마음이 순박하였으나 고집이 강하였고 국사를 위하는 일은

8)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상) (평택시, 2001) p.990.
9) 『조선왕조실록』선조 29년 6월 26일.

매우 정성스럽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10] 원균은 자신의 몸을 잊고 용감히 싸우는 것이 장점인 반면[11] 지친 군졸을 어루만지는 데는 부족하였다.[12]

원균이 53세가 되던 선조 25년(1592년)에는 경상우수사가 되었다. 1592년 4월 13일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양국간의 전쟁준비 격차로 말미암아 개전초부터 일방적인 패주의 연속이었다. 거진(巨鎭)의 명관들은 다투어 도주하고 백성들은 모두 산간으로 피신하여 성읍이 텅 빈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수군 제일의 요충인 경상좌수영의 군사는 수사 박홍(朴泓) 이하 전 장병이 도주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궤멸되었다. 여기에 경상우수영 관할 이하 장병들도 거의 흩어져 휘하에는 약간의 장병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원균은 조정과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여러 번의 서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으나 이순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원균은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고군분투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2주 후인 1592년 4월 26일 조선 정부로부터 공격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순신은 출동을 하기 전에 전라도 관찰사 이광과 방어사 곽영에게 조선 정부의 공격명령을 알렸다. 그리고 다시 경상도 순변사 이일과 경상도 관찰사 김수 및 경상우수사 원균에게도 서신을 띄워서 조선 정부의 공격명령을 알렸다.

당시 전라좌수영에는 24척의 판옥선이 있었다. 관할구역도 가장 작아서 5개의 군현과 5개의 포구가 있었다. 관할구역은 순천·보성·광양·흥양·사도·방답·여도·녹도·발포·낙안 등이었다. 신중한 성격의 이순신이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을 때 1592년 4월 29일 경상우수사 원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신이 왔다.

“적선 3백여 척이 부산·김해·양산 등의 여러 곳에 진치고 있습니다. 연해안 고을과 포구의 병영과 수영이 거의 다 함락되었습니다. 봉홧불도 끊어졌습니다. 저는 본도의 수군을 뽑아 출동시켜 전선 10여척을 쫓아가 깨뜨리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

10) 『조선왕조실록』선조 29년 10월 21일.
11) 『조선왕조실록』선조 29년 11월 9일.
12) 『조선왕조실록』선조 29년 11월 7일.

그러나 밀려오는 일본군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경상우수사 원균은 우수영을 버리고 곤양으로 도피한 후 이순신에게 다시 구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자신의 경계영역을 함부로 넘을 수 없다고 원균의 구원병 요청을 응하지 않았다.

수차례의 출전 요청에도 이순신이 움직이지 않자 마지막으로 원균의 부하장수 이운룡이 와서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1592년 5월 3일 이순신 자신의 수하인 녹도만호(종4품) 정운과 방답첨사(종3품) 이순신(이순신과 동명이인) 등이 강력히 출항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순신은 5월 4일 판옥선 함대 24척을 거느리고 여수항을 출발하였다.[13]

이순신은 5월 6일 전라우수사 이억기 및 경상우수사 원균 등과 함께 거제도 앞바다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5월 7일 새벽 옥포 앞바다에서 진을 치고 있던 왜선을 공격하여 26척을 격침하는 대승을 거두었다.[14] 이후 이순신과 원균은 상호협력 하면서 당포 등 여러 지역에서 연전연승하였다.

그러나 포상과정에서 이순신과의 공로 다툼이 심하여 불화가 발생하였다. 이순신은 일본군과의 첫 해전인 옥포해전을 승리한 후 원균을 따돌리고 조정에 몰래 혼자 장계를 올림으로써[15] 결정적으로 원균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16] 왜냐하면 이순신이 장계에서 자신과 자신의 수하인 좌수영의 장수들의 전공을 낱낱이 보고하면서 원균과 그 수하 장수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안 했기 때문이었다.

1593년 8월 이순신이 신설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어 지휘권을 장악하자 이순신 보다 5년 정도 선배인 원균은 크게 반발하였다. 원균은 후배 이순신의 지휘를 받게 된데다[17] 이전에 전공 다툼으로 사이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불화가 잦았다.[18] 이 반발로 인하여 원균은 1594년 12월 충청병사로 전출되었으며[19] 얼마 후 전라좌병사로 전속되었다.[20] 전라좌병사로 재

13) 백지원,『조일전쟁』((주)진명출판사, 2009) p.133.
14)『조선왕조실록』선조 25년 7월 9일.
15)『조선왕조실록』선조 25년 6월 1일.
16)『조선왕조실록』선조 30년 1월 27일.
17)『조선왕조실록』선조 26년 8월 1일.
18)『조선왕조실록』선조 27년 11월 12일.

직시 원균은 여러 차례 수군작전에 관한 계획조정을 건의하였다.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서울로 압송되어[21] 국문을 받게 되었다.[22] 1597년 2월 이순신은 선조의 명으로 삭탈관직된 후 도성으로 잡혀가서 국문을 받고 죽음의 직전에서 석방되었다. 이후 도원수 권율의 휘하에서 백의종군 하였다. 이에 원균이 이순신을 대신하여 삼도수군통제사가 되는데 이는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해서가 아니었다.

이는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가 이중간첩 요시라를 시켜 가또 기요마사(가등청정)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7천의 병사와 15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오는데 언제 어떤 항로로 오니까 이를 바다에서 공격하여 죽이라는 정보이었다. 이 정보는 요시라에 의해서 김응서에 전달되었는데 이순신은 이 정보를 허위로 알고 움직이지 않았다.[23] 그런데 이러한 이순신의 행동은 가등청정을 공격하라는 조선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비취어 졌다.

이순신으로 투옥으로[24] 인하여 원균은 경상우수사 겸 경상도통제사로 임명되어[25] 삼도수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이 공격해 오자 원균은 먼저 육지에 있는 왜군을 섬멸하고 수군을 공격하자고 조정에 건의하였다.[26] 그러나 비변사 및 도원수 권율은 먼저 왜의 수군 공격을 명령하였다.

이에 원균은 패전할 줄 알면서도 조정의 무리한 명령에 따라 출전하여 삼도수군을 이끌고 부산의 적을 공격하던 중[27]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였다. [28] 이 전투에서 원균은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과 함께 순국하였다.[29] 1604년 원균은 이순신·권율 등과 함께 선무공신 1등으로 책록되어[30]

---

19)『조선왕조실록』선조 27년 12월 1일.
20)『조선왕조실록』선조 29년 7월 9일.
21)『조선왕조실록』선조 30년 2월 6일.
22)『조선왕조실록』선조 30년 3월 13일.
23) 백지원, 앞의 책, p.137.
24)『조선왕조실록』선조 30년 2월 1일.
25)『조선왕조실록』선조 30년 1월 27일.
26)『조선왕조실록』선조 30년 6월 11일.
27)『조선왕조실록』선조 30년 6월 28일.
28)『조선왕조실록』선조 30년 7월 22일.
29)『조선왕조실록』선조 30년 7월 1일.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에 추증되고 원릉군에 추증되었다. 1605년 왕이 내린 치제문과 숙종 때의 대사간 김간이 찬한 「통제사원균증좌찬성공행장」이 있다.

2. 원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원균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당하였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용장이었다. 그러나 후일 이순신이 민족의 영웅으로 각광을 받는 것과는 달리 대표적인 겁장으로 기록되어 오기도 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유신시절에는 이순신은 민족의 성웅인 반면 원균은 민족의 역적이었다.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백의종군을 마다 않는 충신인 반면 원균은 공을 시기하여 충신을 모함하는 역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유신시절에는 하나의 상식이었고 고정 관념이었다. 심지어는 원씨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 원균의 후예라고 놀림까지 받는 실정이었다.

Ⅴ. 이순신의 생애와 이순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1. 이순신의 생애

이순신은 1545년 병조참의를 지낸 덕수 이씨 가의 종손으로 서울 인현동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이백록이 조광조 일파와 같이 어울리다가 기묘사화(1519년) 때 희생되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이정은 말단 무관직을 잠깐 지낸 다음 낙향한 후 더 이상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순신은 몰락한 양반 집안이었다. 이순신의 자는 여해이었고 4형제 중에서 셋째 아들이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과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란 죽마고우였다.

이순신이 태어날 무렵 집안은 가세가 기울어 어머니 변씨가 삯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리하여 이순신은 외가가 있는 충청도 아산으로 이사하여 성장하였다. 이순신은 성년이 되자 보성군수를 역임한 방진의 딸 상

30)『조선왕조실록』선조 37년 10월 29일.

주 방씨와 혼인하였다. 방씨는 아주 총명하였는데 이순신과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다. 또 이순신은 2명의 소실을 두었는데 여기에서 2남 2녀를 두었다.

이순신은 원래 유학을 공부하였다. 20세에 결혼한 이후 이순신을 무과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무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순신은 28세(1576년, 선조 9년)가 되어서 무과에 응시하였으나 실기 도중에 말에서 낙마하여 실패하였다. 32세가 되어서 무과에 급제한 이순신은 함경도 최북단 토성의 파견대장인 권관이 되었다.

이후 이순신은 35세가 되어 서울 훈련원 봉사(서기직으로 종 8품)로 승진하였고 36세가 되어서는 전라도 발포진의 수군만호(종4품)가 되었다. 이때에서 수군이 된 이순신은 남해의 지리와 물길을 자세히 숙지하였다. 그 후 여러 곳의 관직을 거친 다음 45세가 되어서 정읍 현감에 임명되었다.

이순신은 원래 생김새도 무인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기지 않았고 선비형으로 단아하였다. 키도 크지 않았으며 체구도 작았고 몸이 병약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품이 강직하고 강인한 면이 있어 문관보다는 무관이 적성이 맞아서 무관이 되었다.

여기에 이순신은 자존심이 강하고 근엄하여 가까운 친구들이 없었으며 아주 청렴하였다. 이순신은 상관의 지시라도 부당하면 듣지 않았고 부탁과 청탁을 극도로 싫어하였다. 이와 같이 이순신은 청렴하였고 상벌에 엄격하였으며 부하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 지덕을 겸비한 명장이었다.

원균보다 5살이 적었던 이순신은 사람됨이 충용(忠勇)하고 재략(才略)도 있었으며 기율(紀律)을 밝히고 군졸을 사랑하니 사람들이 즐겨 따랐다.[31] 그리하여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무지한 노약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하였다[32]고 한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인 1591년 2월 죽마고우인 유성룡과 정탁의 천거로 종6품 정읍현감에서 정3품인 전라좌수사로 파격적으로

31) 『조선왕조실록』선조 31년 11월 27일.
32) 『조선왕조실록』선조 31년 12월 7일.

승진하여 임명되었다.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자 사간원에서 문제를 삼았다. 이순신의 승진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너무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조가 사간원의 장계를 물리침으로서 이순신이 해전에서 일본군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보니 장부상으로는 30척의 전함이 있는데 실제로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전함은 겨우 5척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이순신은 이때부터 배를 건조하고 수군을 보강하면서 전쟁을 대비하였다. 이순신은 수군을 맡은 이후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일본군과의 해전에서 거의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이순신은 1593년 8월 일본군과의 해전 연승의 공로로 삼도수군통제사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1597년 1월 일본인 이중간첩 요시라의 간계로 파직되었다. 파직된 이순신은 정탁의 구명 상소에 의하여 재등용 되어 백의종군하다가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군에게 패전을 당하자 1597년 7월 22일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었다. 따라서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삭탈관직된 것은 원균의 모함이 아니라 일본의 이중간첩 요시라의 간계에 조선정부가 넘어간 것이었다.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은 수군의 군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순신은 군량의 확보를 위하여 조선 수군의 힘이 미치는 남해안과 여러 섬에 수군과 수군을 따라 피난을 따라다니는 피난민들을 시켜 둔전을 일구었다. 또 이순신은 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기를 잡고 미역과 김을 채취하였고 소금을 구워서 곡식과 바꾸었다. 여기에 또 이순신은 피난민들을 보호해 주는 대신 해로통행첩을 발행하여 곡식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순신은 수 만석의 군량을 확보하여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한편 이순신은 1598년 2월 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을 경상도 진해 남쪽의 큰 섬인 거제도의 바로 서쪽 섬인 한산도에서 남해안 서쪽 끝의 전남 완도동쪽 강진 앞바다에 있는 섬인 고금도로 옮겼다. 왜냐하면 고금도는 수비에 편리한 섬이었고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둔전을 하기에도 좋았기 때문이었

다.[33]

2. 이순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이순신을 최초로 영웅화 시킨 사람은 일제강점기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다. 신채호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민중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대한매일신보』에 『이순신전』을 연재하였다. 여기에서 신채호는 이순신을 항일 구국의 영웅으로 부각시켰다.

이후 1932년에 춘원 이광수가 『이순신전』이라는 역사소설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이광수의 이 소설은 조선의 민중들에게 이순신을 영웅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 소설은 원균을 악질적인 간신으로 묘사하여 이후 원균이 간신의 대명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34]

현대에 들어서서 이순신의 신화와 성웅화는 정인보와 최남선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랐다. 정인보는 이순신을 '거룩한 성자'라 하였고 최남선은 '인류 성선의 최고 발영'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이순신을 '민족의 태양'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이순신을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군략으로나 인간으로나 이런 인물이 다시 태어날 가망이 없다'고 까지 표현하였다.

이후 박정희 군사정부에서는 이순신의 선양사업을 강화하였다. 왜냐하면 이순신은 박정희에 의하여 군사정권의 이념적 표상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자신들의 비정통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이순신을 내세웠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1962년 아산에 현충사가 건립되어 성역화되었고 1968년에는 서울 한복판인 세종로에 이순신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1975년에는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하여 통영 한산도에 제승당이 건립됨으로써 현충사와 함께 충무공의 참배지가 되었다.

33) 백지원, 앞의 책, p.129.
34) 백지원, 앞의 책, p.122.

Ⅵ. 원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선조실록』에 나타난 선조의 원균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이후 공신책록에 있어서 원균을 2등으로 책록하자 선조는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시하였다.

“원균을 2등에 녹공해 놓았다만, 왜란 발생 초기에 이순신은 원균이 구원을 요청해서 간 것이지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 왜적을 토벌할 때 원균이 죽기를 결심하고 매양 선봉이 되어 용맹을 떨쳤다. 승전하고 노획한 공이 이순신과 같았는데, 그 노획한 적괴(賊魁)와 누선(樓船)을 도리어 이순신에게 빼앗긴 것이다”

또 선조는 원균의 칠천량 해전의 패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이순신을 대신해 통제사가 되어서는 원균이 재삼 장계를 올려 부산 앞바다에 들어가 토벌할 수 없는 상황을 극력 진달했으나, 비변사가 독촉하고 대원수가 윽박지르자 패전할 것을 환희 알면서도 진(鎭)을 떠나 왜적을 공격하다가 드디어 전군이 패배하게 되자 그도 순국하고 말았다. 원균은 용기만 삼군에서 으뜸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도 뛰어났던 것이다.”

특히 선조는 칠천량 해전의 패인에 대하여 토벌불가를 주장한 원균의 의견을 무시한 대원수 권율에게 있다는 논리를 개진하고 있다.

“원균이 전쟁에서 패한 후로 사람들이 그를 헐뜯고 있으나 나는 원균 같은 자는 용감하고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누가 한 가지 일을 잘하면 모두 칭찬하고 한 가지 일을 실패하면 모두 비난한다. 원래 영웅은 성패를 가지고 논할 수 없다. 원균을 내가 보지는 못했으나 당초 임진년에 이순신과 마음을 함께하여 적을 칠 때 싸움이 벌어지면 반드시 앞장을 섰었으니 그가 용감히 싸웠던 것을 알 수 있다. 한산 싸움에서 패전한 것으로 다투어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조정이 그를 빨리 들어가도록 재촉했기 때문이다.

그의 서장을 보면 안골포가 그 앞에 있어 금방 들어갈 형세가 못되니 육군

으로 하여금 먼저 적을 몰아내게 한 다음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원수가 잡아들여 곤장을 치자, 그는 반드시 패할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과연 패한 것인가"[35]

그러면서 선조는 원균의 1등공신 책록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원균이 지혜와 용기를 구비한 사람이라고 여겨 왔는데 애석하게도 그 운명이 시기와 어긋나서 공도 이루지 못하고 일도 실패하여 그의 역량이 밝혀지지 못하고 말았다. 오늘날 공로를 논하는 마당에 도리어 2등에 두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원균은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36]

이에 공신 심사자들이 "원균은 당초에 군사가 없는 장수로서 해상의 대전에 참여하였고 나중에는 주사(舟師)를 패전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이순신·권율과는 같은 등급에 넣을 수 없어 2등에 녹공했던 것인데, 방금 성상의 분부를 받들었으니 1등으로 올려 넣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등으로 녹공하였다.[37]

한편 『선조실록』에는 원균과 이순신이 한산도와 당포에서 승전한 일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 원균이 이순신에게 구원병을 청하여 적을 물리치고 연명(聯名)으로 장계를 올리려 하였다. 이때 이순신이 '천천히 합시다'라고 말하고는 밤에 혼자 장계를 올리면서 원균이 군사를 잃어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과 적을 공격함에 있어 공로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균이 듣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겼다. 이로부터 각각 장계를 올려 공을 아뢰었는데 두사람의 틈은 이때부터 생겼다."[38] 대체로 이순신을 주역으로 기술하였지만 원균에 대해서도 공동작전의 한 축으로 적어 놓았지 폄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과 남인들이 『선조실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정실록』을 편찬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를 공식 제기한 인물은 대제학 이식(李植)이었다. 이식이 상소를 올려 수정실록 편찬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서인들이 동조하여 조선 역사상 『수정실록』이 편찬되었다.

---

35)『조선왕조실록』선조 34년 1월 17일.
36)『조선왕조실록』선조 36년 6월 26일.
37) 이덕일.이희근,『우리 역사의 수수께끼』(김영사, 1999) p.199.
38)『조선왕조실록』선조 25년 6월 21일.

『선조수정실록』은 이순신을 충신으로 후하게 서술하고 원균은 역적의 전거가 되게 박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순신은 남인의 영수 유성룡의 추천을 받았으므로 남인으로 분류하고 원균은 북인으로 분류하였다.[39]

그리고 삼도수군통제사 자리바꿈(이순신에서 원균으로)이 원균의 책략에 의한 것으로 각색되면서 원균은 전민족적 공적(公敵)이 되었지만, 사실 이는 원균의 책략이 아니라 어리석은 조정이 왜장 가등청정의 계략에 넘어간 결과이다.

Ⅶ. 맺음말

원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균은 용감한 무장으로서 이순신만큼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옥포·당포해전에서의 승리가 입증하고 있다.

둘째, 5년 연하의 후배인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상관으로 임명되자 반발하였다. 자신의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의 묵살에 의한 반발이었다.

셋째, 이순신이 투옥된 후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것은 원균의 시기와 모함에 의한 책략이 아니라 왜장 가등청정의 계략이었다.

넷째, 삼도수군통제사로서 대원수 권율의 명령을 받아 재침하는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원균은 육지의 왜군을 격파하고 난 후 왜의 수군을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대원수 권율 및 비변사의 명령으로 패할 줄 알면서도 공격하였다.

다섯째, 선조의 호의로 선무일등공신에 책록되었다.

결국 원균은 불패의 신장(神將)은 아니지만 공적(公敵)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는 한 사람의 용감한 장수이자 왜적에 맞서 싸워 목숨을 바친 공신일 뿐이

39) 이덕일.이희근, 앞의 책, pp.201~202.

다. 충무공 이순신은 그야말로 민족의 영웅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순신이 영웅이 되기 위해 원균이 꼭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순신을 추앙하기 위해 다수의 문신들이 왜적의 침입에 놀라 달아나기 바쁜 와중에 힘을 다해 싸웠던 원균 같은 무장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않된다. 왜냐하면 원균은 나라를 위하여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노승석, 『난중일기』(동아일보사).
이민수, 『난중일기』(범우사).
양재수, 『임진대전쟁 1-2』(고려원).
박천홍, 『이순신 평전』(북하우스).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청어람미디어).
루이스 프로이스, 『임진란의 기록』(살림).
이순신역사연구회, 『이순신과 임진왜란 1-4』(비봉출판사).
김방, 『한국의 역사와 문화』(한올출판사, 2002).
김명준, 『임진왜란과 김성일』(백산서당, 2006).
백지원, 『조일전쟁』((주)진명출판사, 2009).
백지원, 『왕을 참하라』 상·하 ((주)진명출판사, 2009).
이덕일·이희근,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김영사, 1999).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상)(평택시, 2001).
원인호, 『임란대장군 원균통제사』(개벽공론사, 1995).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민족문화사, 1991).

여 백

4강

조선 최대의 개혁, 김육과 대동법

조준호(실학박물관 학예팀장)

대동법시행기념비

여 백

조선 최대의 개혁, 김육과 대동법

조준호 실학박물관 학예팀장

목차

Ⅰ. 정치 사회적 상황들, 사림정치의 이해
Ⅱ. 김육 일생의 몇 장면
Ⅲ. 거대 개혁의 담론 – 대동법 논의의 과정
Ⅳ. 경세관료로서 김육, 개혁 성공의 이유

Ⅰ. 정치 사회적 상황들, 사림정치의 이해

1. 연산군대~명종대 4대 사화의 발발 : 개혁적 사림의 피화
– 조광조의 도학(道學) 정치론 주장
하지만 개혁의 추진은 급진적. 군자소인론(君子小人論)
중종년간 기묘사화로 피화
2. 선조년간 훈구척신의 배제와 사림의 집권
– 선조초년 을사삭훈(乙巳削勳)으로 권력을 장악
– 율곡 이이 등 신진 사류들이 정계의 중심으로 부상
※ 선조~숙종년간 17세기의 기간동안 사림들의 집권이 이루어짐
3. 사림정치의 운영구조
– 개념 :
정치의 목표를 조광조 도학정치의 실현[삼대(三代)의 지치(至治) 실현]
집권의 명분을 도학(道學=주자성리학)에서 찾음
도학의 실천자인 군자 집단의 붕당(朋黨)을 허용
정치사안의 판별기준은 도학에 기준한 공론(公論)에 의함

- 공론의 형성과 수렴장치
  중앙 : 이조전랑과 언론 삼사[홍문관, 사간원, 사헌부]⇔대신[정치실무]
  지방 : 산림(山林)을 중심으로 한 향촌사림세력[지방의 서원(書院)]

※ 사림정치하의 공론정치의 실상 (이중환의『택리지』)
정치를 담당하는 것은 의정부와 6조의 대신 및 판서들인데 그러나 실제의 정국주도권은 이들보다도 이조의 5품정도의 관직에 머무는 전랑 곧 이조전랑에게 있었다.
이조전랑은 삼사의 관리를 그 아래 두고 여론의 향배와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조정의 풍속이 염치와 명분을 숭상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신이라 하여도 한 번 삼사의 탄핵을 받게 되면 관직을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조전랑의 말 한마디에 대신의 지위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Ⅱ. 김육 일생의 몇 장면

1. 기묘사림의 후예
- 본관은 청풍, 호를 잠곡, 회정당
- 기묘사림 김식의 증손 흥우興宇와 조광조의 증손녀 사이의 장남
- 조광조의 도학정치의 이념을 지향

2. 광해군대 성균관 문묘종사운동의 선봉에 서다
- 31세(광해군 2년) 태학의 오현문묘종사운동에 참여
- 32세(광해군 3년) 태학 재임齋任으로 정인홍鄭仁弘의 유적 삭제 주도
- 계축옥사[영창대군 사사] 발발이후 가평 잠곡동에 은거
- 이후 44세까지 10년동안 야인 생활 - 거처를 잠곡으로 옮김[청덕동]

** 1704년 가평의 사대부들이 잠곡서원潛谷書院을 건립, 현재 터만이 보존

3. 늦은 출사와 활동
- 44세 1623년 인조반정이후 1624년 9월 전시殿試에 장원
- 인조대 관력 : 실무와 개혁안의 구상

중앙관직 – 실무관직에서 형조판서 등 역임
지방관직 – 충청도관찰사(대동법 건의), 개성유수(동전 유통)
– 중국사신 – 57세 1636년 동지사로 임명 등 이후 수차례 사신행
※ 명나라에 마지막으로 간 조선 사신, 김육

4. 만년에 대동법을 추진하다
– 효종 즉위 70세, 효종 즉위후 우의정 제수 – 재정 개혁 주도
지지 세력의 결집 : 한당漢黨의 영수 ⇔ 김집의 산당山黨과 갈등
– 효종 2년 영의정 제수, 충청도 대동법 실시
손녀 세자빈 간택
– 효종 8년 전라도에 대동법 실시
※ 다양한 저술 활동
《유원총보》 – 중국 각종 저서 참조 편찬한 백과사전 –27항목 방대한 저술
《해동명신록》 – 역대 명신296명의 행적과 업적 기록 –관료제 강화의 자료
《구황촬요》– 언문본 발간과 《벽온방》 간행 – 기근과 질병 구제
* 김육의 활자체 개발과 김석주의 금속활자 한구자韓構字 주조 – 인쇄문화 발전 기여

Ⅲ. 거대 개혁의 담론 – 대동법 논의의 과정

– 공물貢物과 진상進上 : 국가적 수요품의 조달
공물은 공안貢案에 기록된 정규적인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구분
농민들은 공물의 부담과 함께 운반 수송에 드는 노동역을 요역의 형태로 부담

농가호 ------> 지방관 ------> 중앙 각관청
공물 공물

① 중종년간 기묘사류들의 공안 개정 추진 – 사화士禍로 실패
② 명종말 사대동私大同 출현 - 공물의 대리납부[방납防納], 이후 관행화
③ 선조 2년 이이李珥의 수미법收米法 – 사대동을 법제화하여 전국적 시행 주장

토지 ------> 지방관 ------> 중앙 각관청
쌀 공물
* 중앙 관청이 이권 축소 등으로 반대, 논의에 그침

④ 선조 27년 유성룡의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
- 전란중의 군량미 확보에 우선 목표(성과없이 1년만에 폐지)
⑤ 광해군대 한백겸, 인조대 이원익 경기대동법 : 대동법의 시험단계
- 전란 복구과정에서 양전量田 및 공안이 미비한데 따른 대책
- 광해/인조년간의 불안한 정치정세로 지연
⑥ 김육의 대동법 추진 : 충청도→전라도→경상도 순으로 시행[1708년 전국 시행]
- 산당 계열의 반대 : 토지세 증가에 따른 양반지주의 반대 여론 - 공안개정론
- 효종 즉위이후 내치 주력 - 북벌론의 분위기 영향

분류	**김육의 한당계**	김집의 산당계	효종과 원두표 등
이념	**안민익국安民益國**	민생안정	부국강병
방식	**대동법**	공안 개정 (여론에 좌우)	북벌론 실현

* 김육의 안민익국론
나라를 굳건히 하는 길은 민생의 안정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신이 어찌 백성을 사사로이 사랑하여 국방의 급함과 재정의 중요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신은 오직 국가와 전하를 위할 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 대동법 : 상납미와 유치미로 구분
- 상납미 : 중앙의 선혜청에서 관장하며, 공물, 진상, 세폐歲幣의 구입 비용
- 유치미 : 지방관 관장, 관청의 물자마련이나 관원들의 녹봉지급 등에 이용

토지 - → 지방관 - → 선혜청 - → 각 관청
(12두) 2두 (10두) 대납자

※ 대동법의 의의
가호家戶 단위의 공물 등을 토지세土地稅로 편입
민생의 부담 경감 : 1결 70두 → 1결 12두 정도 징수
각종 역역役役의 물납화와 금납화를 촉진

공인층의 대상大商으로 전환 – 상품화폐경제를 견인하는 효과

18세기이후 지방 유치미가 점차 감소하여 지방 재정의 곤란을 초래하는 원인

Ⅳ. 경세관료로서 김육, 개혁 성공의 이유

1. 김육에 대한 당시대의 평가

김육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인 대사성 김식金湜의 후손이다.…사람됨이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 정확하였다. 나라를 위한 정성을 천성으로 타고나 일을 당하면 할 말을 다하여 꺼리거나 두려운 일을 피하지 않았다. … 평소에 경제經濟를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정승이 되자 새로 시행한 것이 많았으니, 충청·전라도의 대동법은 그가 건의한 것이다.

다만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 처음 대동법을 의논할 때 김집金集과 의견이 맞지 않자, 김육이 불평을 품고 여러 번 상소하여 김집을 공박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점으로 여겼다. (《효종실록》 9년(1658) 9월 5일, 김육의 졸기)

2. 대동법의 추진과 의미

: 도학정치 정책이념을 현실에서 구체화 ~ ‘大同’

: 단계적 시행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 공물 세입 세출 파악 등 주도면밀성 – 충청도 전라도의 대동절목 작성

3. 범 정파적 협력 체제의 구축

: 산당과의 피치못할 갈등을 제외하고 정적을 만들지 않음

: 비판자에 대한 포용 – 산당계 송시열 등에게 세자 보도 요청

: 당색을 초월하여 경세 관료 육성 : 대동법(서필원), 동전유통(박수진)

4. 군주에게 거듭된 재신임 요구와 개혁 추진

: 효종대 정승 임명후 산당의 공격에 대한 돌파구로 20여차례의 사직상소 제출

: 효종의 신임후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 실현시킴.

여 백

5강

심순택과 평택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진위면 봉남리의 심순택묘

여 백

심순택(沈舜澤)과 평택

김해규 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목차

1. 한국의 근대와 심순택 그리고 평택
2. 심순택의 정치활동
3. 심순택과 평택

1. 한국의 근대와 심순택 그리고 평택

19세기 후반은 격동기였다. 조선은 내부적으로 봉건사회가 해체되어가며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날로 거세지고 있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과 개항은 비록 타율적이었지만 한국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하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개항으로 한국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었고 열강의 침략에 맞서 자강과 근대화를 이루고 국가와 민족을 보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지배층은 개항과 근대화에 반대하고 중세적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유생층(위정척사파)과 근대문물의 수용과 근대적 개혁에 찬성하는 개화파로 나뉘었다. 또 개화파도 서양의 사상과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근대적 군사기술이나 산업기술 같은 서양문물만 수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파와, 서양문물은 물론 사회제도와 체제까지 수용하자는 급진개화파(개화당)로 나뉘었다. 이들은 19세기 제국주의 침략 이념으로 각광을 받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래서 제국주의 세력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보다 근대화를 통해 자강과 자위를 모색하려고 했다.

동도서기파는 근대화 개혁 모델을 중국의 양무운동에 두었다. 이들은 사상적으로는 보수적이었고 친청(親淸) 성향의 인사들이 많았으며 지위가 높고 왕실과 밀착되어 있던 친정부 인사들이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체제와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려 했으며 자강의 방법으로 서양의 기술과 문물도입을 추진하였다.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전면적이고도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흥선대원군 집권시절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영환지략, 해국도지 등으로 세계정세와 개항의 필요성을 배우고 깨쳤으며 후진을 양성하여 1880년대 초에는 정계에 진출하여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였다.

심순택(1824~1906)은 개항기 대표적인 정치가다. 평택지역은 청송 심씨 가문의 전장(田莊)이 있었던 곳이다. 또 말년에는 그의 며느리가 일찍 죽은 외동아들의 위패를 진위 만기사에 봉안하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 봉남리 동부마을에 저택을 짓고 머물면서 심순택과 구씨부인도 함께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심순택도 1906년 사망한 뒤에 봉남리 저택 근처의 산록에 묻혔다. 지금도 봉남리에는 그의 낡은 저택과 묘, 그리고 신도비가 남아 있다. 심순택이 죽은 뒤에도 부인 능성 구씨는 봉남리에 자주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며, 빈민구제에 힘쓰고 저택 아래에 '구씨학원'이라는 근대학교를 설립하여 인재교육에 힘썼다.

2. 심순택(沈舜澤)의 정치활동

심순택은 1824년(순조 25년)에 노론 명문[1] 청송 심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비교적 이른 나이인 26세(1850)에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처음부터 정5품 벼슬인 홍문관 교리를 제수받아 '옥당(玉堂)'에 들었다. 조선시대 '옥당(玉堂)'은 학문과 인품이 갖춰진 인재들의 등용문이었고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그 뒤로 순조롭게 승진하여 1861년에는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고, 1867년에는 예조판서, 1873년에는 충청도 관찰사, 1879년에는 예조판서 겸 세조 시강원 좌빈객, 1880년에는 이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부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한 뒤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1) 심순택의 종조부는 정조 때 노론세력을 이끌었던 영의정 심환지이며, 조부인 심풍지도 노론으로 판서의 지위에 올랐다.

과정에서 심순택은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적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였다. 동도서기(東道西器)이란 개항 초기 정부의 개화정책 방향으로, 중화주의적 동아시아질서와 성리학적 지배체제를 인정하고 봉건적 왕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유럽의 근대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자강론(自强論)이었다.

동도서기파의 인물들은 김윤식, 어윤중 등 대부분 왕의 신임을 받는 조정의 개명관료들이었다. 심순택은 왕의 신임을 얻어 개화정책 추진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의 기계사, 군물사, 선함사의 당상관(堂上官)에 임명되었고, 근대문물의 수용과 군사기술의 도입, 국방력 강화에 중심 역할을 했다. 1882년 임오군란 때는 난의 책임지고 파면되었지만 청(淸)의 간섭으로 대원군이 실각하고 친청수구정권이 수립될 때 의정부 좌참찬을 거쳐 홍문관 대제학에 임용되었다. 이후 심순택의 정치적 태도는 친정부(親政府), 친청적(親淸的) 경향을 보였다.

1884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급진개화파가 일본을 등에 업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당시 우의정이었던 심순택은 급진개화파의 개혁에 반대하는 한편 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 그 영향으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친청수구정권에서 영의정에 올랐으며 정부의 수장으로 열강들과 수교하고 학교와 병원설립, 전화, 전신도입 등 근대화정책을 주도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발생했을 당시 심순택은 영의정이었다. 정부의 수장으로 농민군들의 요구에 보수적 입장을 보였으며 정부군이 패하자 청(淸)에 파병요청을 했다.[2] 이것은 심순택의 사상적, 정치적 입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청군의 파병 요청은 곧 청일전쟁으로 확전되었으며 심순택은 농민전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하지만 1895년 8월 을미사변(1995)으로 명성황후 민씨가 시해되고 삼국간섭(1895)과 아관파천(1896~) 후 정권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의정부 의정을 거쳐 의정부 특진관에 임명되어 격변기의 정부를 지탱했다. 당시 특진관은 친정부적인 고종의 최측근들이 임명되었는데 심순택도 여기에 포함된 것을 보면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심순택은 1897년 광무개혁의 중심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조정의 원로로 칭제건원(稱帝建元)으로 조선이 청의 속방(俗方)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앞장섰

2)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3월

으며,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는 데 중심역할을 했다. 이렇게 탄생한 대한제국은 왕의 처족인 민씨세력, 박정양, 이완용 등 정동파(친미파), 심순택, 김병시 등 동도서기파 원로대신들의 연합정권이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대신들은 민중계몽과 민권운동,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했던 독립협회에도 참여했으며 근대적 회사설립이나 근대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심순택은 독립협회와 거리를 두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공홍식 옥중살해사건'을 계기로 윤용선, 조병식 등과 함께 독립협회로부터 탐학(貪虐)한 대신으로 탄핵[3]을 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탄핵 후 1년 만에 정계에 복귀하여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1905년까지 관직에 있었고, 조정의 원훈으로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또 1901년에는 공훈1등 태극정, 1902년에는 이화대훈장과 청녕공에 봉해지는 은사를 입었으며, 사후에는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3. 심순택과 평택지역

심순택은 개항기 왕의 최측근이며 조정의 원훈(元勳)으로 정부차원의 개화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사상적으로는 동도서기(東道西器) 입장이었고 친청파(親淸派)의 경향을 보였다. 벼슬은 젊어서는 홍문관에서 관직생활을 했으며 영의정, 이조와 예조판서, 의정부 의정 및 특진관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그는 노론(老論)에 속했고 명문가의 자손이었으며[4], 자신의 생각보다 왕과 조정의 입장을 최우선했던 전형적인 기득권층이며 관료였다.

심순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을 극형에 처하고 조약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수차례 올렸다. 하지만 정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상심하여 두문불출하다가 1906년 2월 봉남리 자택에서 사망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심순택의 사망 시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심순택의 사망관련 기사는 우선 《고종실록》에 기록되었고[5], 황현

3) 1898년 9월 황제와 황태자에게 독이 든 커피를 진상한 사건으로 이른바 '독다사건(毒茶事件)'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독립협회는 부패, 무능한 관리의 척결을 외치며 대정부 투쟁을 하였는데, 고위 관리로는 심순택(沈舜澤)·이재순(李載純)·심상훈(沈相勳)·민영기(閔泳綺)·신기선(申箕善)·이인우(李寅祐) 등이 탄핵대상으로 지목되었다.

4) 심순택의 부친 심의린은 진사(進士)에 불과했으나 조부 심능악과 증조부 심풍지는 판서에 올랐다.

의 《매천야록》[6]과 《황성신문》[7]에도 나온다. 《고종실록》에는 '심순택이 풍채와 위풍이 순수하고 단아하며 성품과 도량이 온화하고 은혜로우며 일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부지런했다. 개혁과정에서 보필한 공이 많으며 시골로 물러났을 때에도 국가의 원로로 의지했다'고 말했다. 또 심순택의 장례에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보내주고 직접 치제문을 내렸으며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호(諡號)를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예조에서는 1906년 4월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려 고인의 충절을 기렸다.

심순택의 사후 남은 가족들은 부인 능성 구씨(구택희)와 양자 심상진이 있었다. 하지만 심순택이 남긴 재산을 놓고 가족 사이에 격렬한 분쟁이 있었다. 당시 재산 분쟁을 했던 사람들은 심순택의 자녀들과 양자 심상진으로 보인다[8]. 이 때의 재산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아서 1932년 재산 13만원 때문에 또 다시 분쟁이 발생하여 명문가의 집안 싸움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심순택의 부인 정경부인 능성 구씨는 구태화의 딸이며 이름은 '택희'이다. 1849년생으로 1824년생인 심순택과는 25세나 차이난다. 이것은 첫 부인의 사후 새로 얻은 재취(再娶, 계배)라는 의미다. 《문과방목》에는 심순택의 처부가 군수를 지낸 이진재로 나오고 있어 첫 부인(원배)의 성(姓)이 '이(李)'씨였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청송 심씨 대종회 홈페이지에는 이진재의 딸이 증정경부인 한산 이씨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능성 구씨는 심순택의 사후 봉남리 저택과 서울 계동 저택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9]. 그러던 중에도 진위면 일대에 흉년이 들면 빈민을 구제했고, 1915년[10]에는 무산아동을 교육하는 '구씨학원'을 설립하여 가난하지만 배움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무료로 근대교육을 실시했다. 구씨학원은 그 뒤에 교명을 '금릉학원'으로 바꿔 운영되었다. 또 1925년 진위공립보통학교(현 진

5) 《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2월 25일 1번째 기사(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6) 황현, 《매천야록(梅泉野錄)》 5卷 광무 10년 2월

7) 《황성신문》 1906년 2월 27일자

8) 《매일신보》 1912년 10월 6일자. 보도된 내용에는 심상숙, 심상원, 심상진, 심태섭, 심상유와 같은 인물들의 이름이 거명된다.

9) 1930년 증손 심재후가 금릉학원을 재 개교할 때 구씨 부인은 서울 계동의 저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 나이가 81세로 나와 있다.

10) 1925년 5월 1일 《동아일보》에는 '금릉학원 개교 10주년 운동회 개최'를 보도하고 있어 설립시기가 1915년 5월 17일임을 알게 한다.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금릉학원은 10년 동안 8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대운동회에는 180여 명이 참가하고 있어 1925년 당시 학생 수가 180여 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초등학교)를 증축을 할 때는 오백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하여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이 같은 선행에 감동한 진위면민들은 진위면 봉남리에 송덕비를 건립하고 은혜를 기렸다. 현재 송덕비는 진위향교 앞 선정비각에 모셔졌다.

구씨 부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던 금릉학원은 구씨가 연로하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1930년 서울과 일본에서 공부한 증손자 심재후(1903년생)씨가 구씨 부인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를 신축하고 운영기금을 마련하여 재 개교했다. 심씨는 우선 3천 원을 투자하여 봉남리 저택 아래에 보통학교 수준의 교사(校舍)를 신축하고 교육설비를 구비한 뒤 서울에서 교직 경험이 있는 김익환씨를 초빙하여 교장으로 선임하였다. 또 매년 소작료 200석을 받는 시가 2만원 상당의 토지를 학교운영기금으로 기부하여 가난한 인재들을 무료로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던 구씨부인의 유지가 이어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향후 고등보통과를 설치하여 진위지역에 중등교육을 실시할 청사진도 내놨다[11]. 하지만 금릉학원의 고등과 운영은 실패한 듯하며 해방 후에는 마땅한 운영자가 없던 중 가곡리의 안동 권씨 가문에서 인수하여 진위중고등학교로 발전시켰다.

■ 참고문헌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관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보》
《문과방목》
황현, 《매천야록》
경기도, 《경기인물지》, 1991
진위면지편찬위원회, 《진위면지》, 평택문화원, 1999

11) 《중외일보》 1930년 9월 13일자

2017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 평택의 조선인물열전

발행일	2017년 12월 1일
발행인	김은호(평택문화원장)
기획	황수근, 최실비
저자	2017 평택학 시민강좌 강사 공저
발행처	평택문화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	031-655-2002
팩시밀리	031-654-8807
인쇄	평택복사프린트
저작권자	2017 평택문화원

※ 이 책의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자료집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7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평택의 조선인물열전

평택시

平澤文化의 中心 –
평택문화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 655. 2002
FAX 031. 654. 8807
www.ptmunhwa.or.kr